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93호 HYUNBULNEWS.COM 2026년 9월 9일(음력 7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에 진우 스님 당선

9월 3일 역사문화기념관서
선거인단 321명 전원 투표
진우 스님 183표 받고 당선
경우 스님 138표…무효표 0
조계사 참배…당선 소감 발표
“새로운 100년 열 것” 다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태성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은호 기자



당선증 교부 직후 조계사로 이동한 진우 스님이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후 당선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임은호 기자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에 진우 스님이 당선됐다.

9월 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321명 전원이 투표에 참가해 기호 1번 경우 스님 138표, 기호 3번 진우 스님 183표를 얻어 진우 스님이 당선됐다. 무효표는 없다. 이로써 진우 스님은 제37대 총무원장에 이어 제38대 총무원장에 연임하게 됐다. 총무원장 재임은 33·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 이후 13년 만이다.

이번 선거는 종단의 ‘변화’와 ‘안정’ 가운데 선거인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오후 1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태성 스님의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다”는 선포로 투표가 시작됐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 스님과 총무원장 후보 경우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이 차례로 투표했으며, 이후 투표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투표는 오후 2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선거인단은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를 지켜봤으며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후 3시께 개표가 마무리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태성 스님은 “진우 스님의 당선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당선 발표와 함께 장내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태성 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은 진우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지해 준 스님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어 선대위 소속 스님들과 함께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부처님께 헌향하고 삼배를 올렸다.

참배 직후 진우 스님은 종정 스님과 원로 스님들, 선거인단을 포함한 모든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오늘의 선택은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라는 준엄한 뜻으로 받들겠다”며 “선거 과정에서의 모든 인연과 의견을 소중히 품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구와 함께,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종단의 미래를 열기 위해 공의를 모으고, 공감으로 하나되며, 공심으로 실천하겠다”며 “승가는 더욱 당당하게, 종단은 더욱 안정되게, 불교는 더욱 젊고 역동적으로 만들어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앞서 ‘공의·공감·공심’을 바탕으로 한 △교구 활성화 △선거제도 개선 및 비구니 위상 강화 △승려복지 완전 실행 △종단 재정 안정적 확보 △전통선과 선명상 대중화 △대사회 자비행 실천 강화 △시대와 함께하는 전법·포교 △K-불교문화 진흥 △도제양성 대혁신 △사찰 공익 가치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관응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8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몽성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으며 담양 용흥사 주지,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등을 지냈다. 또 조계종 호계원 재심호계위원, 총무원 총무부장과 기획실장, 제8대 교육원장, 불교신문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진우 스님은 9월 4일 원로회의 인준을 거친 후 9월 28일부터 4년간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한편 총무원장은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여야 한다. 종헌에 따라 종단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총괄하며, 해인사·통도사·송광사 등 전국 25개 교구본사를 비롯한 3000여 개 사찰을 종헌·종법에 따라 관리한다.

또 총무원 종무원과 각 사찰의 주지 임면권을 비롯해 종단과 사찰에 속한 재산을 감독하고 그 처분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다. 특별분담사찰과 직영사찰 등 주요 사찰의 예산 승인 및 조정 권한도 행사한다.

대외적으로는 학교법인 중앙승가대의 당연직 이사장을 비롯해 불교 주요 종단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당연직 회장, 한국 7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을 맡는다.

현장 영상 바로가기

울산 도심서 펼쳐지는 선명상·미디어아트 향연

9월 18~20일, ‘선명상축제-울산’
복합문화공간 만디 일원서 열려

도심 한복판 복합문화공간에서 미디어아트와 자연, 시(詩)와 선(禪)이 어우러진 특별한 선명상축제가 펼쳐진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조계종 미래본부와 (사)태화복합문화공간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선명상축제-울산’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와 백양사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4월 서울 봉은사에서 시작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2026 선명상축제’의 일곱 번째 행사다.

축제는 금강 스님의 ‘선명상의 노래’로 시작된다. 한국 전통 간화선의 가르침과 참선 수행에서 얻은 통찰을 현대인의 일상 언어로 풀어낸 짧은 글을 나누며,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번 울산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만디의 미디어아트 전시홀 ‘라이트룸’에서 진행되는 ‘오감 빛 선명상’이다. 빛과 소리, 향, 호흡을 결합한 몰입형 명상 프로그램으로, 탄호 스님이 강의를 맡는다. 싱잉볼의 공명음과 아로마 향을 활용해 몸의 긴장을 풀고 호흡에 집중하도록 구성해 명상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무료로 총 2회 운영된다.

숲과 사찰의 자연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백양사와 함월산 일대에서 열리는 ‘함월산 걷기명상’은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발걸음과 호흡, 주변의 자연 감각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2회 운영된다.

축제 기간 만디 1층 로비에서는 2026 선명상축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마음처방전’이 상시 운영된다. 참가자의 성향과 일상의 고민에 대해 맞춤 명상법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9월 19일 저녁 루프탑에서는 ‘선명상 음악회’도 열린다. 해질녘 노을을 배경으로 재즈 기타리스트 김대호·박혜지, 테너 이지윤이 무대에 올라 재즈와 성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인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선명상의 노래를 비롯해 미디어아트, 걷기명상 등 복합문화공간인 만디이기에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선명상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평안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 선명상축제-울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내영 기자

“불교중흥의 도약을 완성하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전에 정례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종정 예하, 원로 대덕 큰스님들을 비롯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여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 저는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제 당선은 이미 시작된 변화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종단 발전의 도약을 완성하라는 종도들의 염원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적수성연(積水成淵), 적은 양의 물이 쌓이면 큰 못을 이룹니다.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종도 여러분께서 전하신 혜안의 고견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종도들의 여망을 담아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종단은 사부대중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떠한 파고(波高)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4년이 종단의 안정된 바탕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안정된 바탕 위에서 도약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700여 년의 장구한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는 전 세계인이 동경하는 K-문화의 원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불교문화의 진흥을 통해 세계인이 한국 사찰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전통선으로 이어지는 선명상이 국민의 마음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한국불교가 세계 정신문명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종단 행정을 책임지는 소임자로서 청정한 화엄(華嚴)의 수행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를 위해 함께해온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스님 및 지도위원 스님들 이하 모든 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선의의 종책 경쟁을 펼치신 경우스님과 정념스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 스님께서 제안한 좋은 종책들은 잘 반영해 실행하겠습니다.

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우리 종단의 원융화합을 통해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완성하는 불교중흥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합장

태고종 원융회 "총무원장 연임제 강력 반대"

8월 31일, 천안 천왕사서 기자회견
지난해 부결 연임제 재추진 반발
현직 적용·재임 견제장치 요구
"과거 분규 아픔 되풀이 말아야"
개정규정, 새 총무원장 적용 제안

천안=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고종 원융회는 8월 31일 천안 천왕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연임제 종헌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유재상 충청지사장

태고종 총무원장 연임제 도입을 둘러싼 종단 내부 갈등이 공개적인 반대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한 차례 중앙종회에서 부결됐던 총무원장 연임제 개정안이 올해 다시 추진되자, 태고종 스님들의 모임인 원융회(회장 일로 스님)가 연임제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원융회는 8월 31일 천안 천왕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연임제 종헌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융회는 연임제 도입 자체의 타당성과 함께 현직 총무원장인 상진 스님에 대한 개정안 적용 여부, 장기 재임 가능성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특히 연임제 자체와 현직 총무원장에 대한 적용 문제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융회는 "우리의 원칙은 현행 4년 단임제 유지와 연임제 개정 원안 반대"라면서 "설령 연임제를 논의하더라도 연임제 본칙과 현직 총무원장에 대한 즉시 적용은 반드시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종회에 "현행 4년 단임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면서 "최대 8년의 재임 가능성을 열려면 권한에 대한 견제·감시·책임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원융회는 △총무원장 연임을 위한 종헌·종법 개정 즉각 중단 △현직 총무원장에게 유리한 제도 변경이라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독립적인 논의 절차 보장 △특정 지도자의 연속 집권이 아닌 세대교체와 새로운 지도자 양성 관점에서 종단 미래 논의 △과거 태고종 분규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종단 제도와 운영의 근본적 성찰 등을 요구했다.

법사분과위원장 지담 스님은 "우리 종단은 특정 스님의 연임 문제로 상처가 너무나 깊고 후유증이 컸다"며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연임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로회의 부의장 성호 스님도 "과거 태고종 분규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융회는 연임제 개정안의 경과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원융회는 현직 총무원장은 개정 전 종헌에 따라 임기를 마치고, 개정된 연임 규정은 이후 새롭게 선출되는 총무원장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총무원 측은 연임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종책사업의 연속성과 종단 운영의 안정성을 제시하고 있다. 총무원장이 4년마다 교체될 경우 중장기 종책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종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한편 태고종 중앙종회 법사분과위원회는 9월 1일 회의에서 총무원장 연임제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임제 개정안은 9월 16일 열리는 중앙종회에서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제19대 종회 전국 본사서 10월 15일

9월 22~24일, 후보자 접수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8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35차 회의를 열고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10월 15일 오후 1시부터 전국 교구본사에서 실시된다. 후보 등록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다. 후보자 자격심사는 10월 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직능대표 종회의원과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10월 12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관련 공고는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9월 15일자에 게재된다.

김내영 기자

월정사 주지 후보에 인광 스님

9월 1일 주지후보 선출 산중총회
"교구 대중과 공동체 안정 이끌 것"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제27대 주지 후보에 인광 스님이 선출됐다.

제4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적천 스님)는 9월 1일 대설법전에서 '본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선거인단 190명 중 161명의 구성원이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으며, 개표 결과 인광 스님이 119표를 얻어 주지 후보로 선출됐다. 기호 3번 설암 스님은 39표를 얻었고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는 2004년부터 22년여 동안 주지 소임을 맡았던 정념 스님이 지난 7월 31일,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교구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치러지게 됐다.



당초 인광·도완·설암·해공 스님 등 4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 과정에서 기호 2번 도완 스님이 '자격 없음' 결정을 받으면서 후보는 3명으로 압축됐다. 이어 산중총회를 하루 앞둔 8월 31일 기호 4번 해공 스님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인광 스님과 설암 스님의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

투표 결과는 인광 스님의 압도적인 우세로 나타났다.

인광 스님은 당선 직후 소감을 통해 "부족한 저에게 무거운 소임을 맡겨주신 4교구 대중스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월정사와 오대산의 미래를 교구 대중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어른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대중 스님들의 수행과 삶을 존중하며 승가의 화합으로 교구의 안정을 이끌겠다"며 "지혜와 자비로 늘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산중총회에서 주지 후보로 선출된 인광 스님은 총무원장의 임명 절차를 거쳐 월정사 주지로 취임하게 된다.

인광 스님은 정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93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97년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강원과 율원을 거치며 교학과 수행의 기반을 다졌다. 상원사 감원, 국형사 주지, 월정사 총무국장 및 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원주 화엄선사 주지를 맡고 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9년 만의 경선, '안정' 택했다

경우 스님·진우 스님 양자대결
전국 교구 누비며 종도 표심 공략
승적 문제 등으로 공방 격화도
원로의장 "흑색선전은 파화합"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진우 스님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9년 만에 복수 후보가 맞붙은 이번 선거는 후보 등록 단계부터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3파전으로 출발했지만, 기호 2번 정념 스님이 중도 사퇴하면서 1번 경우 스님과 3번 진우 스님의 양자대결로 재편됐다.

이번 선거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오랜 기간 사실상 단일후보 추대 방식으로 진행돼 온 상황에서 치러진 경선이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진우 스님이 단독후보로 당선된 데 이어 이번에도 현직 총무원장의 연임 도전이 예고됐지만, 월정사 주지를 지낸 정념 스님과 선운사 주지를 지낸 경우 스님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 구도가 형성됐다.

8월 11일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경우 스님은 기호 1번, 정념 스님은 기호 2번, 진우 스님은 기호 3번을 배정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 후보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했고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단하면서 3파전은 공식화됐다.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선출된 240명 등 모두 321명으로 구성됐다.

초반 선거전의 화두는 '변화'와 '안정'이었다. 현직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지난 4년간의 종단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종단 운영과 새로운 도약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경우 스님과 정념 스님은 종단 운영의 변화와 혁신, 교구 중심의 종단 운영 등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세 후보는 수행과 전법, 교구 활성화, 승가복지,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 등을 놓고 종책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8월 24일 정념 스님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선거 구도는 급변했다. 정념 스님은 후보 사퇴와 함께 경우 스님 지지를 선언하며 '종권 교체'와 종단 시스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경우 스님과 진우 스님의 양자대결로 압축되면서 선거전은 더욱 본격화됐다. 두 후보는 전국 교구본사를 찾아 종도들을 직접 만나며 자신이 구상하는 종단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경우 스님은 '불교 대도약의 시대, 교구와 함께 열겠습니다'를 전면에 내걸었다. 전통 수행 가풍을 시대정신으로 승화하고 교구 중심의 획기적인 종단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과 AI시대 대응, 불교문화 르네상스, 청년 전법과 세계화, 승가복지,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 등을 주요 기조로 제시했다. 특히 선운사에서의 교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교구가 살아야 종단이 산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현직 총무원장으로서 지난 4년간의 종단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에서 도약으로'라는 방향을 내세웠다. 총무원장으로서 구축한 종단 행정과 대외 협력 기반을 토대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종단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 간 공방도 거칠어졌다. 특히 진우 스님의 승적과 수계 경위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후보 자격과 종단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종회의원과 종도들은 진우 스님의 구족계 수계 경위와 승적, 피선거권 등을 문제 삼으며 검증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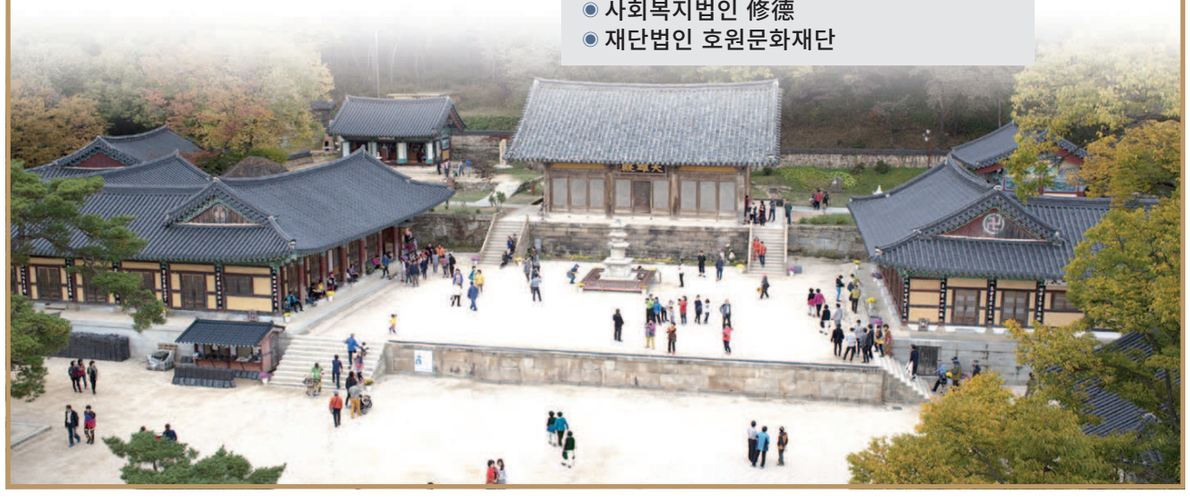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후보 모두에 대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계종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선거를 앞두고 종단 안팎에서는 금권·관권·조직 동원 선거를 경계하고 종책 중심의 선거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는 유시를 통해 후보들에게 원융과 화합의 모범적인 선거를 당부했다.

자광 대종사도 유시를 내려 "승가의 근본은 원융이며, 승가의 생명은 화합"이라며 무분별한 흑색선전과 비방을 경계했다. 특히 종단의 화합을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면서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거를 주문했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변화와 안정, 교구 중심의 종단 운영과 현 집행부의 연속성을 둘러싼 경쟁 끝에 진우 스님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德崇叢林 修德寺
方丈 達河 愚松
叢林大衆一同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www.sudeoksa.com
전화 041)330-7700 팩스 330-7702
선 수행 템플스테이 전화 041)330-7789
(sudeoksa@daum.net)
수덕사노인요양원 전화 041)338-7711
사회복지법인 修德
재단법인 호원문화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주지 진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안정서 도약으로…'불교중흥' 완성 이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 주요 종책 공약은

- 승려 완전복지 · 기본수행비 추진
- 문화사업 · 기부 확대로 재원 확보
- 중앙 권한 이양해 교구 자치 강화
- 선명상, 국민 마음운동으로 확산
- AI · 뉴미디어 활용 청년전법 확대
- 선거제도 개선 · 비구니 위상 강화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이끌 차기 집행부의 종책 방향은 제37대 집행부에서 추진한 변화를 제도화하고, 이를 수행·전법·교구 운영 전반으로 확장하는 데 맞춰져 있다.

진우 스님이 제시한 종책 공약 기조는 '공의·공감·공심'이다. 제37대 집행부가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과 선명상 보급, 불교박람회·템플스테이·'나는 절로' 등을 통해 종단 안정과 불교문화 확산에 주력했다면, 제38대 집행부는 이 같은 성과를 지속 가능한 제도와 조직으로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진우 스님이 첫 번째로 제시한 공약은 교구 중심의 종단 운영이다. 진우 스님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이 주도하고 교구가 따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구와 함께 생각하고 결정하며 실천하는 종단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의 권한을 교구에 이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포교·문화·사회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총무원은 정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해 사찰의 수행·포교·불사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교구본사와 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교구본사주지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우수 종무원을 교구본사에 파견하는 순환근무제도 추진한다. 중앙분담금은 점진적으로 감면해 교구가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조성한다.

교구와 사찰의 특성에 따른 '특화도량' 지정도 추진된다. 불교문화 전승에 강점이 있는 사찰은 전승 중심 도량으로, 청년 포교 기반을 갖춘 사찰은 청년불교 상징 도량으로 육성하는 방식이다. 각 교구가 보유한 인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성과를 종단 전체로 확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승려복지 강화를 위한 공약도 눈길을 끈다. 진우 스님은 출가에서 열반까지 교육·주거·의료·요양을 종단이 책임지는 '승려완전복지'를 추진하고 전 종도를 대상으로 '기본수행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수행자가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수행과 교육, 포교와 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기본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본수행비의 지속적인 지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불교 전통문화 굿즈의 생산·유통·판매, 불교 콘텐츠의 유료화, 유휴자원 활용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진우 스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종단 재정 안정과 승려복지 확대로 연결해 수행과 전법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제38대 집행부에서는 기본수행비의 지급 범위와 방식뿐 아니라 불교문화사업을 통한 재원 조성체계를 구체화하는 일이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제37대 집행부의 대표 종책인 선명상은 '국민 마음운동'으로 확대된다. 현대사회에서 불안과 스트레스 등 마음의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명상을 통해 현대인의 마음을 돌보고 불교의 수행 전통이 가진 정신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전통선을 기반으로 한 선명상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인다는 게 진우 스님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담선대법회를 정례화하고 중앙선명상센터를 설치해 선명상의 효과와 보급 방법을 연구한다. 간화선 참선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지도법사와 지도자를 양성해 지역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인력 기반도 마련한다. 국내외 명상 전문가와 세계 석학이 참여하는 국제선명상 컨퍼런스를 개최해 한국 선명상을 'K-선명상'과 'K-마음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청년전법은 선명상과 불교문화,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청년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나는 절로'와 '청년밥心' 등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청년층이 직접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회성 행사 참여를 지속적인 신행으로 연결한다. 지역별 군포교 지원사찰을 지정해 교구와 군부대 간 전법 기반도 강화한다.

AI와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법체계도 구축한다. 청년 전법 인재를 양성하고 AI·뉴미디어 포교를 담당할 전담기구를 설치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불교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한다. AI는 교리 분석과 번역, 행정 보조 등에서 적극 활용하되 기술이 인간 존중의 가치에 따라 사용되도록 불교의 지혜와 자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불교문화는 전법과 재정 확충을 연결하는 기반으로 활용한다. 연등회를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육성하고 템플스테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불교박람회는 규모와 개최 지역을 확대하고, 불교문화의 보존과 산업화를 지원할 불교문화진흥 전승관 건립도 추진한다. 민간 국제교류를 통한 K-컬처 지원을 확대해 한국불교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사업도 병행한다.

선거제도와 승가교육의 정비도 제38대 집행부의 과제다.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여러 방안을 열어둔 채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구니 스님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종무행정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불교연구소 설립과 온라인 승려교육 플랫폼 구축도 주요한 공약이다.

대사회 활동에서는 일회성 지원 중심의 자비나눔을 자립형 자비나눔으로 전환하고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확대한다. 전통사찰 경내지와 건축물의 종교 목적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국가유산 관람료 감면제도 보완, 재난 유형별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유산 유지·보수비 자부담 감면도 추진한다. 사찰림의 생태·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진우 스님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종단 운영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승가는 더욱 당당하게, 종단은 더욱 안정되게, 불교는 더욱 젊고 역동적으로 만들겠다."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끌 4년은 안정 속 도약을 위한 변화의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중흥을 위한 도약은 시작됐다.

주요 공약 영상 바로가기

진우 스님이 걸어온 길

종무행정 두루 경험 위기마다 종단 안정 이끌어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은 어린 나이에 출가해 종단 주요 소임을 두루 맡아 종단 안팎의 굵직한 현안에 안정적 해결을 이끌어왔다. 총무원 총무부장과 기획실장, 교육원장 등을 역임한 데 이어 제37대 총무원장을 지내며 종단의 안정적 운영과 불교의 대중화·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역동적인 한국불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관응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8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출가 후에는 몽성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 정진하는 한편, 제18교구본사 백양사와 용흥사 주지를 맡아 전법·포교와 가람 수호에 매진했다. 현장 일선에서 지방과 중앙 종무행정의 가교역할에도 앞장섰다.

중앙종무기관에서도 주요 소임을 지냈다. 호계원 재심호계위원으로 활동하며 수행종풍 진작에 진력했으며, 총무원 총무부장과 기획실장을 역임하며 종단의 주요 현안 조율에 힘쏟았다. 2018년 전임 총무원장 불신임 사태로 종단이 혼란에 빠졌을 때는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과 화합을 도모했다. 2019년에는 제8대 교육원장에 취임해 승가교육 발전에 매진했다.

총무원 교육원장 · 총무부장 등 역임
2022년 37대 총무원장 무투표 당선
선명상 대중화 이끌며 '역동적 불교'

2022년 진우 스님은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처음 무투표 당선으로 제37대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총무원장 재임 기간에는 불교 대중화와 불교문화의 현대화, 종단 조직 정비, 전통사찰 권익 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대표적인 사업이 '선명상 대중화'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불교가 마음의 안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5초 명상' '우선 멈춤'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을 제시했다.

종단 조직을 정비하는 변화도 있었다. 2025년 4월에는 1994년 종단개혁 이후 30년 만에 총무원·포교원·교육원의 삼원 체제를 총무원 일원 체제로 통합했다.

불교중흥의 원력을 모으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사업을 비롯해 전통사찰 권익 회복을 위한 입법 성과도 이뤄냈다.

젊은 세대와 불교의 거리를 좁히는 문화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됐다. 불교박람회와 사찰음식대축제, 연등회 등 불교문화 행사에 새로운 감각을 더하면서 젊은 층의 관심을 끌어냈고, 이른바 '힙한 불교'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제 38대 총무원장으로서의 새로운 4년은 선명상의 국제적 확산을 비롯해 청년·미래세대 포교, 교구 자치 강화, 승려복지 완전 실현, 종단 재정 확보 등 지속가능한 종단의 기반을 다져야 할 때다. 진우 스님이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 한국불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갈지 관심을 모은다.

김내영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회 주 명 성
주 지 은 광
운문사 사부대중 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전화 054)372-8800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불교계, 네팔 대홍수 피해에 '구호 손길'

재단·동행·더프라미스, 긴급 모금
천태종·총화종 "극락왕생 발원"
불교단체 "온실가스 감축" 촉구

임은호 · 이현희 기자



네팔과 중국 · 티베트 접경 히말라야 일대를 덮친 기습 대홍수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불교계가 긴급 모금에 착수하고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사진은 네팔 홍수 피해 현장 모습.
사진 출처=네팔TV 페이스북 갈무리

네팔을 덮친 대홍수로 인명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불교계가 잇따라 긴급 모금에 착수하고 희생자와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지난 8월 26일 네팔과 중국·티베트 접경 히말라야 일대에 빙하 붕괴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8월 31일 네팔 국가재난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900여 명이 숨지고 4000여 명이 실종됐다. 교량·도로·수력발전 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파괴되면서 피해 주민들은 당장 머물 곳과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로와 통신이 끊긴 일부 지역에는 구조대 접근이 어렵고 추가 홍수 위험도 있어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10월 31일까지 '네팔 홍수 피해 긴급 모금'을 진행한다. 모금액은 생활용품 지원과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를 위한 생계 지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도륜 스님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6-64104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02-6334-2208**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도 10월 말까지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긴급 모금'을 전개한다. 모금액은 긴급 식량, 의약품, 위생용품 등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사용된다. **후원계좌: 농협 301-0366-4563-11 아름다운동행 02-737-9595**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는 9월 말까지 긴급 모금을 진행하는 한편, 현지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구호단을 파견했다. 구호단은 카트만두 지역에 베이스캠프를 마련하고 9월 20일까지 네팔 아동 미래 단체(CFO)와 협력해 이재민들에게 필요 물품을 전달하는 등 구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158-910020-26904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02-735-3119**

불교계는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조속한 참사 수습을 기원하는 애도의 뜻도 모았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8월 28일 '네팔 대홍수 참사에 대한 애도문'을 내고 "네팔은 부처님께서 나신 룸비니가 자리한 땅이자 한국불교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곳"이기에 "지금 네팔이 겪는 어려움은 결코 멀리 있는 일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총화종(총무원장 혜각 스님)도 9월 1일 애도문을 통해 "피해 지역의 아픔은 남의 일이 아니며 사부대중 모두의 아픔"이라며 "갑작스러운 재해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일심으로 발원하며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번 참사가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 각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불교계 단체 9곳은 8월 28일 '히말라야의 무너진 빙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 제하 애도문을 통해 "이번 참사는 일반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와는 다른 양상의 복합재난"이라며 "탄소중립만 말하기보다 온실가스 감축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계종 긴급구호단은 9월 5일과 8일 현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구호 활동을 펼쳤다.



'2026 VIYA 전국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성료

(사)비로자나청소년협회(협회장 원영 정사)는 8월 29일 서울 진선여고 회당기념관에서 '2026 VIYA 전국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단체 댄스 동아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중등부 12팀과 고등부 10팀 등 모두 22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접전 끝에 중등부 대상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장상은 대구 영신중 '플러스 투'가 차지했다. 고등부 대상인 진각종 통리원장상은 서울 명지고 '비트(beat)'가 수상했다. 임은호 기자



동방불교대, 2026학년도 1학기 장학금 전달

동방불교대학은 9월 1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강당에서 '2026년도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은 총무원장 상진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보현장학회장 자운 스님, 서울강북교구 종무원 선우회 회장 성해 스님이 후원했다. 최우수상에는 불교학과 태산 스님과 범수 스님, 범패학과 현담 스님과 명안 스님이 선정돼 총무원장 상진 스님으로부터 상장과 장학금을 받았다. 임은호 기자

"만해 정신 계승" 동국대 언론동문회 출범

8월 31일, 초대 회장에 남철우
신문·방송 등 동문 언론인 한자리
1회 만해언론인상에 김종필 국장



동국대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인 '동국대 언론동문회'가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에는 남철우 전국언론사불자연합회장이 선출됐다.〈사진〉

동국대 언론동문회(회장 남철우)는 8월 31일 서울 동국대 상록원에서 출범식과 '제1회 만해언론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동국대 언론동문회는 신문·방송·통신·뉴미디어를 비롯해 홍보, 언론 유관단체, 방송·영상, 출판·잡지·인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의 모임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남철우 동국대 언론동문회 준비위원장이 선출됐다.

남철우 회장은 "선배의 경험과 후배의 패기가 만나 서로 다른 세대와 매체의 동문들이 연결될 수 있는 동문회를 만들겠다"며 "만해언론인상을 제정해 만해 스님의 언론 정신을 계승하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헌신한 언론인을 발굴하고 격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언론계에 존경받는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국대 언론동문회 출범과 함께 제정된 '만해언론인상'의 첫 수상자로는 김종필 내일신문 편집국장이 선정됐다. 만해언론인상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언론정신을 계승하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헌신한 언론인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1회 만해언론인상을 수상한 김종필 편집국장은 "감격스럽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만해 스님의 생명력이 언론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의 책임감을 갖고 더욱 정진할 때 동국인의 기상을 지속가능하게 추구할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항상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팔정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겨 언론에 빛이 되는 길잡이가 돼주길 바란다"며 출범을 격려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도 격려사에서 "동국대 언론인 모임의 새로운 출범을 축하하며, 만해언론인상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후원하겠다"고 전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과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도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현장에 함께한 이경철 동국대 대외협력처장, 김용환 언론정보대학원장,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노웅래 전 국회의원 및 언론인들도 동문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동국대 언론동문회는 재학생 10명에게 '동국인언론인발전기금'으로 각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박지운 기자

5대 종교인 함께 DMZ 걷는다

10월 1~22일, 고성-파주 순례
불교계 실천불교승가회 등 참여

불교·원불교·개신교·천주교·천도교 국내 5대 종교인들이 비무장지대(DMZ)를 함께 걸으며 한반도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순례에 나선다.

2026 DMZ 생명평화순례 준비위원회와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는 9월 1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 DMZ 종교인 생명 평화 순례' 취지와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순례는 '상처를 넘어, 다시 연결되다-생명과 평화의 다리를 놓다'를 주제로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강원 고성과 경기 파주 일대에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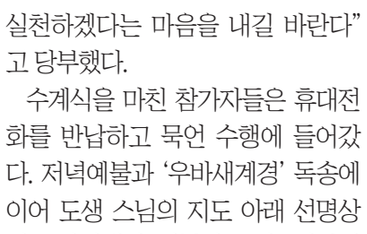
순례에는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와통일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천도교 소속 종교인 40여 명이 참여한다. 일반인도 구간별 순례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9월 30일 고성 명파아트호텔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뒤,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해 양구·화천·철원·연천을 거쳐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까지 약 410㎞를 걷는다.

매년 순례에 참여해 온 실천불교승가회 소속 장적 스님은 이날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아픔이 치유되길 발원하고,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아가길 종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다. 031-941-6223 이현희 기자

"1박 2일 팔관재계로 심신 청정히"

봉녕사, 제5회 팔관재계 법회
8월 29~30일, 총 31명 동참



하루 낮과 하루 밤 동안 여덟 가지 계를 지키며 세속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의 장이 마련됐다.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5회 팔관재계 수행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남성(우바새) 6명과 여성(우바이) 25명 총 31명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1박 2일간 출가자의 삶을 경험하며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5회 연속 참가자와 여성출가학교 출신 청년 불자들이 다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첫날 삼귀의계와 오계 수계식에 이어 팔관재계의 의미를 되새기는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대적광전에서 봉녕사 율주 적연 스님을 계사로 팔관재계 수계식이 봉행됐다. 적연 스님은 법문에서 "1박 2일 동안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계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묵언 수행에 들어갔다. 저녁예불과 '우바새계경' 독송에 이어 도생 스님의 지도 아래 선명상에도 참여했다. 이튿날 오전 4시부터는 새벽예불과 '생명의 소리 108배'를 하고 아침운력으로 경내 풀을 뽑으며 공덕행을 실천했다. 이후 수행과정에서 느낀 점을 서로 나누며 1박 2일간의 팔관재계 수행을 회향했다.

참가자들은 "본연의 나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호흡하는 내 자신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나태하고 무질서했던 마음을 비우고 계를 통해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종무원, 연등 모연 '자비나눔'

8월 31일, 조계종 종무원조합
동행에 659만 · 재단에 500만원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김추연)이 정성으로 마련한 기금을 취약계층과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자비나눔으로 회향했다.

종무원조합은 8월 31일 서울 전법회관 사무처에서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에게 '위기가정 생계 지원' 기금 659만 1000원을 기탁했다.〈사진〉 기금은 종무원들이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등을 제작해 모연한 것으로, 취약계층의 냉난방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추연 위원장은 "올해는 아름다운동행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여러 사회복지기관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오 스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성껏 모아주신 성금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오 스님과 김추연 종무원조합 위원장, 유대호 총무부장, 최낙훈 총무차장이 참석했다.

같은 날 종무원조합은 서울 전법회관 6층 임원실에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을 예방하고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난치병 어린이의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도륜 스님은 "마음을 내어 동참해 주신 종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종무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치료를 이어가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종무원조합은 "앞으로도 난치병 어린이가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사업에 꾸준히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전법 동반자 될 것"

조계종 '신도조직 임원연수'
교구 · 신도단체 160여 명 참석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가 전국 신도조직 임원들의 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1박 2일 연수를 개최했다.

포교부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과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 '2026년 신도조직 임원연수'를 진행했다.〈사진〉

그동안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관했던 신도조직 임원연수를 올해부터 총무원이 주최하고 포교부와 중앙신도회가 주관하는 종단 교육으로 확대·개편했다.

이번 연수에는 전국 24개 교구신도회와 16개 신도단체의 임원 160여 명이 참석했다.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개회사에서 "신도조직은 단순히 종단을 지원하는 조직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신행을 돕는 전법의 동반자"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해진 신행의 형태에 맞춰 신도조직도 더욱 활력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첫날 입재식 후 수행과 종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법문과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포교부장 정무 스님의 '불교 5대 수행법', 김영일 전 총무원 총무차장의 '종단 이해와 신도 임원의 자세', 각성 스님의 '부처님 번지수가 틀렸슈!'를 주제로 한 불교문화 스토리텔링이 연이어 진행됐다.

이어 '행복바라미 작은 음악회'와 '달빛시네마'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마련됐다.

연수 둘째 날에는 제6교구본사 마곡사를 참배하고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의 법문 후 회향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지운 기자

AI부터 뇌과학까지…마음돌봄 미래 만난다

동국대 종학연구소,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돌봄 체험’ 행사

휴머노이드 로봇 명상 안내 등
마음돌봄 디지털 기술 ‘한자리’
9월 19 · 20일 종로 토포하우스
9월 29 · 30일 동국대 도서관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9월 1일 열린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기자간담회 직후 행사 관계자들이 명상 안내 휴머노이드 로봇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는 조주 선사의 어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명상을 안내하도록 학습한 로봇입니다. 물론 제가 조주 선사님은 아닙니다. 다만 1200년 전 중국 당나라에서 활동하셨던 조주 선사의 말씀과 선문답의 분위기를 AI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통해 잠시 느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자리를 잡아 보십시오.”

휴머노이드 인공지능(AI) 로봇 ‘애지봇(AGIBOT)’이 전하는 명상 안내 중 일부다. 이처럼 최신 마음돌봄 디지털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9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 정신건강 인식 제고와 일상 속 자기돌봄 확산을 위한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돌봄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9월 19~20일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와 9월 29~30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2층 IF Zone & MASIL에서 열리며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전체 프로그램은 세 개의 체험존으로 구성된다. ‘마음 웨이브 탐지(디지털 마음 진단 체험)’ 존에서는 브레인유(BrainU)의 패치형 뇌파 기기로 측정한 뇌파를 바탕으로 만다라 이미지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된다. 뉴로아로마 체험에서는 뇌파를 통해 나에게 맞는 향기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옴니핏(Omnifit) 뇌파 측정, 유비오맥파 HR 검사 등 첨단 장비를 통해 스트레스·집중도·감정 상태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진식 동국대 의생명공학과 교수팀이 개발한 ‘브리오라’ 타액 기반 스트레스 측정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들 체험은 의료적 진단이 아닌 ‘셀프 케어 참고용 자기 점검’으로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피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내 감정 맞춤 길잡이(AI 상담·소셜 로봇 체험)’ 존이다. 이곳에서는 로봇이 직접 명상을 이끌고 참가자와 문답을 주고받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체험이 진행된다. ‘애지봇’이 안내하는 명상을 마친 뒤 궁금한 점을 묻고 기념 촬영도 할 수 있으며,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돌봄 로봇 ‘레미’와 국내 최초 소셜 로봇으로 알려진 ‘리쿠’도 명상과 마음돌봄 콘텐츠를 선보인다.

‘위로미 멘탈헬스 데스크’에서는 rPPG 카메라 센서가 비접촉 방식으로 심박과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맞춘 힐링 프로그램을 AI 상담사가 즉석에서 안내한다. ‘마음검사’ 및 ‘마음우체통’ 등 키오스크를 통해서는 자기돌봄을 위한 AI 안내와 함께 결과지를 받아볼 수도 있다.

‘내 마음을 돌보는 공간(VR/XR·WE SOUND 몰입형 마음돌봄)’ 존에서는 싱잉볼 사운드를 시각적 패턴으로 변환한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명상이 진행된다. 참가자가 직접 싱잉볼을 울리면 그 소리에 반응해 화면의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 스쳐지나가는 전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곧 작품이 되는’ 체험형 공간 속에서 명상을 경험한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AI의 눈부신 발전이 누구나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게 하는 좋은 방편(方便)이 될 수 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AI시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탐색하고 측정 데이터에 기반한 자기점검과 정서적 돌봄으로 시민 스스로 정서적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자칼럼

불교굿즈, 유행 넘어 산업이 되려면

불교굿즈가 불교와 대중을 잇는 새로운 언어로 자리 잡았다. 불상과 동자승을 활용한 인형·키링부터 불교적 문구를 담은 의류, 전통 장인이 만든 고가 오브제까지 외연도 넓어졌다. 불교박람회마다 이어지는 오픈런과 완판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 같은 성공을 단지 ‘귀여움’이나 MZ세대의 취향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해탈컴퍼니의 ‘깨닫다’ 티셔츠가 약 3000장 팔린 배경에는 불교의 깨달음을 동시대 언어로 번역한 기획력이 있다. 여진불교의 석굴암 본존불 펀딩이 목표액의 1002%를 달성한 데에는 문화유산의 권위와 장인의 수작업, 한정판의 희소성이 작용했다. 도반HC ‘붓쯔’ 브랜드화와 부산국제불교박람회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상품이 인물·영상·공간과 결합할 때 브랜드 접점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열기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다. 오픈런과 완판은 출발점일 뿐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박람회에 집중된 판매 구조와 유행을 좇는 상품은 소비자의 관심이 옮겨가면 쉽게 흔들린다. 불교 상징을 맥락 없이 차용하거나 희화화하면 종교적 가치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찰과 문화유산, 창작자 사이의 정식 사용 계약과 수익 환원 원칙을 세워 ‘불교굿즈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저가 입문 상품과 실용적인 생활용품, 장인 기반의 고가 소장품을 연결하는 가격대별 상품군도 필요하다.

상품에 담긴 교리와 문화유산의 이야기를 영상·교육·명상·사찰체험으로 확장하며 팬덤을 형성해 나가는 것도 불교굿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박람회 구매자를 온라인 회원과 재구매 고객으로 연결하고, 다국어 설명과 해외배송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장기 사업을 위한 조건이다.

불교굿즈의 경쟁력은 불교를 가볍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어렵게 느껴졌던 가르침을 오늘의 생활 속에서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는 데 있다. 불교굿즈의 소비를 통해 구매자 스스로 불교적 가치관을 이해·형성시킬 수 있을 때 불교굿즈는 유행을 넘어 문화산업이자 전법의 매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온전한 배상 촉구

8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서
故 서영철 추모 · 진상규명 촉구



가습기살균제 참사 15주기를 맞아 4대 종교가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온전한 피해 배상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개신교 교회와사회위원회,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4대 종단은 8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4대 종단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는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 인정 범위 개선과 배상 기준 보완 등 사회 각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계 대표로 참석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소속 한수·원경 스님은 고(故) 서영철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태도를 호소했다.

한수 스님은 “오랜 투병에도 혼신을 다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으려 노력한 서영철 대표의 넋을 기리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슬픔에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위로했다.

특히 관련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당부하며 “서영철 대표와 남은 피해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에 정부와 기업은 책임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3월 ‘가습기살균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피해자 보상이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들은 △시혜적 구제 중심의 설계 △좁은 피해 인정 범위 △피해자 단체 및 연대체의 협상권 보장 등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현희 기자

성소수자 뺀 교육부 ‘재검토’

혐오 · 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조계종 사노위, 배포 중단 촉구

교육부가 작성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자,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9월 중 전국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던 가이드북의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8월 28일 ‘교육부는 차별적인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 장관은 사과하라’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노위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은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그 기준을 담고 있다”며 “극심한 차별에 노출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것에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부의 책임을 명시한 사노위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부마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이렇다면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에 어떤 기대를 걸고 살아야 하냐”며 “교육부는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하고 가이드북 제작과 배포를 중단하고 성소수자들에게도 정중히 사과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사회대개혁을 하겠다고 들어선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길 바란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반대하며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각계의 비판 여론에 교육부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이드북이 아직 배포된 것은 아니며, 해당 문제에 대해 다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財)韓國佛教 如來宗
총무원장 명 안
사부대중일동

총무원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로 1길 28-1 전화 043)731-2261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사)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혜 각
사부대중일동


총본산(총무원)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죽촌로454-86 실상사
☎ 전화 (043)745-4508, 팩스(043)745-4506 ☎ 010-5436-2740

“무기 대신 자비로” 유엔공원에 핀 평화 발원

자비세상 · 자비명상 총동창회
9월 1일, 평화공원서 걷기 명상
세계 향해 “전쟁 중단” 촉구
마가 스님 “하화중생 실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사단법인 자비세상과 자비명상 총동창회 소속 스님들이 9월 1일 부산 남구 유엔평화공원에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걷기 명상을 진행했다.

사단법인 자비세상(이사장 마가 스님)이 부산 유엔평화공원에서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촉구했다.

(사)자비세상과 자비명상 총동창회는 9월 1일 부산 남구 유엔평화공원 일원에서 세계평화 기원 호소문 낭독 및 걷기 명상 행사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구촌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의 실상을 알리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공원 입구에서 평화의 탑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시작해 삼귀의, 호소문 낭독, 영문 평화 선언문 낭독, 반야심경 봉독, 평화 기원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석 스님들은 ‘나무아미타불’을 정근하며 걷기 명상을 통해 자비의 마음을 온 세상에 회향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스님들은 “Stop the War, Start the Peace(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시작하라)”라는 호소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전쟁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참석한 스님들은 혜광 스님(서울 참나선원)의 호소문 낭독에 함께 합장하며 “미사일이 떨어지는 곳에는 정치나 이념이 아닌 학교에 가야 할 아이와 가족을 위해 일하는 부모가 살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무력 대신 대화를 선택하고 증오 대신 자비를 베풀 것”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호소했다.

자비명상 총동창회장 혜정 스님은 “대중들이 세상을 향해 평화를 외치는 동시에 스스로의 마음을 고요히 돌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비명상 총동창회는 평화 기원 행보를 이어간다.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함락 후 왜장을 껴안고 바다에 투신한 두 기녀의 넋을 기리는 남구 이기대를 방문해 추모의 시간을 갖는다. 또 참석 스님들이 각자의 수행 여정과 향후 회향 방안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도 연다.

자비세상은 앞으로 전국 사찰에 상담 및 명상을 위한 마음 보건소와 마음 약방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명상과 심리 상담을 결합해 현대인의 상처 입은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나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마가 스님은 “자비로운 세상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거듭 돌아보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실천적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통도사를 그리다…제5회 전국사생대회

10월 10일, 서축암 옆 운동장서
초·중·고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산사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는 자리를 마련한다.

통도사는 10월 10일 서축암 옆 운동장 일대에서 ‘제5회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영축문화축제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를 개최한다.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의 아름다움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생대회는 미래 세대에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인원 제한이나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참가 부문은 초등부(저학년·고학년), 중등부, 고등부로 나뉜다. 초등부 저학년은 8절지, 고학년은 5절지에 수채화나 크레파스화를, 중등부와 고등부는 4절지에 수채화, 아크릴화, 파스텔화 중 선택해 작품을 완성하면 된다. 대회 주제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9월 20일까지 통도사 홈페이지 또는 (사)한국미술협회 양산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팩스, 전화 및 문자(평일 오후 1시~5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상자는 10월 14일 통도사 및 양산미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0월 19일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 정법사, 대보부모은중탑비 제막

8월 27일, 백중 회향법회
쌀 4000kg 등 자비나눔도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백중을 맞아 조성 108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대보부모은중탑(大報父母恩重塔)의 정비불사를 회향하고 탑비를 제막하며 효행 정신을 되새겼다.

정법사는 8월 27일 만불보전과 대보부모은중탑 일원에서 병오년 백중 7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정법사 초대 포교사 경봉 스님의 원력으로 1918년 조성된 대보부모은중탑은 경남도 유형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정법사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훼손된 탑의 원형과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옛 사진과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정비불사를 진행해 왔다. 정법사는 이날 법회를 기념해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독송·사경본도 법공양했다.

백중기도의 공덕을 지역사회에 회향하는 자비나눔도 진행됐다. 정법사는 신도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공양미 4000kg을 마산합포구청(1000kg), 초록우산(1000kg), 창원 사회복지협의회(1000kg), 창원 불자 봉사단(500kg), 온사랑(500kg) 등에 전달했다. 또 대자유치원 자모회가 부처님 오신날 일일찻집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과 광우 스님의 저서 인세 등을 더한 500만원을 사단법인 리본 유기견 협회에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삼광사, 예술 꿈나무들에 ‘감동 무대’ 선사

제4회 문화예술 아카데미 발표회
8월 30일, 삼광사 특설무대서



8월 30일 삼광사에서 열린 ‘제4회 어린이 · 청소년 문화예술 아카데미 발표회 및 초청공연’에서 참가 학생들과 삼광사 스님들,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광사

부산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응원하고 화합의 가치를 일깨우는 문화한마당을 펼쳤다.

삼광사는 8월 30일 대중공양실 특설무대에서 ‘제4회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 아카데미 발표회 및 초청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12일 개강한 문화예술 아카데미 활동을 회향하며 참가자들이 그동안 익힌 기량을 가족과 이웃 앞에서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카데미에는 5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칼림바, 붐웨커, 음악줄넘기, 방송댄스, 합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익혔다. 특히 하나의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배려하는 과정을 겪으며 예술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이뤄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발표회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칼림바 연주로 막을 올렸다. 학생들은 영화 ‘와일드 씽’의 ‘니가 좋아’와 악동뮤지션의 ‘소문의 낙원’을 맑은 음색으로 연주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붐웨커 팀이 다채로운 색상의 붐웨커로 ‘도레미송’과 로제의 ‘아파트’를 선보이며 객석에 경쾌한 에너지를 선사했다.

역동적인 동작이 돋보인 초등학생들의 음악줄넘기와 유아부의 방송댄스는 현장의 열기를 이끌었다. 그룹 QWER의 ‘내 이름 맑음’에 맞춰 발랄한 율동을 뽐낸 유아들에게는 관객들의 미소와 아낌없는 환호가 쏟아졌다.

발표회의 피날레는 17명의 단원이 입을 맞춘 합창 무대가 장식했다. ‘찬미의 나라’와 ‘부처님 되자’를 부르는 아이들의 환한 얼굴과 맑은 하모니가 무대를 가득 채웠다.

아카데미 참가자들의 무대 외에도 댄스, 음악줄넘기, 마술, 풍선아트 등 다채로운 초청공연이 더해져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앞서 삼광사는 예술교육 외에도 템플스테이, 다도, 푸드아트, 도자기 만들기, 물놀이 등을 결합한 여름캠프를 병행해 아이들이 친밀감을 쌓고 불교문화와 친숙하도록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끌었다.

삼광사 교무국장 덕중 스님은 “오늘 이 자리가 어린이들이 꿈과 끼를 펼치고, 서로를 응원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황련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넋 위로

8월 30일 생명평화 문화제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해원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문화제전이 부산 황련사에서 펼쳐졌다.

부산 황련사(주지 정산 스님)와 민족미학연구소 생명평화제전추진본부는 8월 30일 황련사 일원에서 ‘2026 아시아 생명평화 문화의 제전-일본군 위안부 천도재 및 해원상생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와 여성독립군은 불꽃-별빛-연꽃으로 우리 근현대사의 지모신(地母神)이여라’를 주제로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 평화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시키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산 스님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평화를 발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참선이나 명상을 하다 보면 생각과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게 되고, 그 순간 자동적인 반응도 멈출 수 있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데서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쿠무다, 백중 맞아 어르신에 ‘자비나눔’ 공양

8월 28일, 로터스봉사단 전달식
9월 11일 2차 자비나눔 이어져



복합문화공간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가 불기 2570년 백중 회향을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사단법인 쿠무다 부설 로터스봉사단은 8월 28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백중 회향 자비나눔 1차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쿠무다 이사 지안 스님(울산 연지암 주지)과 성보영 로터스봉사단 단장, 임경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을 비롯해 로터스봉사단원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자비나눔은 로터스봉사단의 정기 후원 활동의 일환이다. 봉사단은 매월 한 차례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가구와 홀몸 어르신 108세대에 직접 조리한 반찬을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백중 기도의 공덕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평소보다 풍성한 보양 음식으로 구성했다.

전달된 물품은 전날 이사장 주석 스님과 봉사단원들이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한 제육볶음과 김치 등 밑반찬 3종과 즉석 삼계탕 등 간편 보양식을 비롯해 김, 두유, 과일 등 부식류 등이다. 음식은 송정동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지안 스님은 “봉사단원들이 백중 회향의 뜻을 담아 어르신들께 정성을 모았다”며 “지역 주민 모두가 다가오는 가을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쿠무다는 9월 11일 오후 4시 30분 해운대구청에서 2차 자비나눔 행사를 열고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즉석 보양식 1080개를 추가로 보시할 계획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반려동식물 극락왕생 발원합니다”

울산 덕원사, 8월 30일 천도재
덕원 스님 “자비로 편히 쉬길”



오랜 시간 가족과 함께하다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이들을 떠나보낸 보호자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 덕원사(주지 덕원 스님)는 8월 30일 대웅전에서 ‘반려동식물 합동천도재’를 봉행했다. 천도재는 반려동식물의 위패를 모시고 영가를 청한 뒤 관욕과 공양 등 불교 전통 천도의식으로 진행됐다.

덕원 스님은 “천도재는 사랑했던 반려동물과의 인연을 아픔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태어나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며 “반려동식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랑에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며, 생명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두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참석 대중은 발원문에서 “이제 모든 아픔과 미련을 내려놓고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감사를 가슴에 품은 채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편안히 쉬어가기를 바란다”며 영가들의 왕생과 보호자들의 마음 치유를 함께 기원했다. 천도재에 동참한 보호자들도 떠나보낸 반려동식물을 향한 그리움을 전했다.

울산 북구에서 온 한 동참자는 “천도재를 지내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며 “이제는 아프지 않고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포항에서 반려묘 ‘찡이’를 천도하기 위해 찾은 보호자는 “천도의식으로 편하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후련해졌다”고 말했다. 052-246-8688 성낙두 경남지사장

“배움·수행·화합으로 미래 발전 모색”

대승불교삼보조계종 연수대회



사단법인 대승불교삼보조계종(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9월 2일부터 3일까지 창녕 로얄호텔 연수장에서 ‘2026 종단 종도합동 연수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종회의장 지홍 스님, 교육원장 덕일 스님을 비롯해 스님과 임원 9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원장 덕일 스님은 인사말에서 “교육은 끝이 아니라 수행과 성장의 시작”이라며 “이번 연수는 단순한 지식교육이 아니라 종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격려사에서 “종도들의 수행과 교육, 화합과 실천이 종단을 발전시키고 불교의 자비와 평화정신을 사회에 널리 전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회의장 지홍 스님은 특강을 통해 신도와 출가자 감소 등 한국불교가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종도 교육과 포교, 사찰운영의 변화 방안을 제시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청화 대종사 가르침, 디지털로 되살린다

청화사상연구회 첫 하계 워크숍
선양 사업 중장기 과제 논의 진행
2.7TB · 2만3000건 자료 정리
청화 스님 사상 세계화 기반 마련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벽산무주회와 청화사상연구회는 8월 31일 무안 혜운사에서 '2026 청화사상연구회 하계 워크숍'을 개최하고, 청화 큰스님의 다양한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사업을 논의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지식 청화 대종사(1924~2003)가 남긴 방대한 자료와 수행사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한 문도들의 선양사업이 본격화된다.

청화 대종사의 탄생지인 무안 혜운사(주지 정헌 스님)는 8월 31일 청화기념관에서 '2026 청화사상연구회 하계 워크숍'을 열고 유품과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한편 학술연구와 기념관 운영을 연계한 중장기 선양사업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벽산무주문도회 부의장 무상 스님, 성륜문화재단 이사장이자 광륜사 주지 명원 스님, 성륜사 주지 주원 스님, 혜운사 주지 정헌 스님을 비롯해 배광식 청화사상연구회장(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와 신도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이재수 교수의 '청화 대종사 아카이브 사업 현황과 과제' △배광식 회장의 '청화사상 선양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 △이재수 교수의 '학술세미나 운영 기획안' △정헌 스님·이재수 교수의 '청화기념관 개관 및 운영 활성화'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청화 대종사가 남긴 방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핵심 사업으로 제시됐다. 벽산무주문도회는 지난 7월 7일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확보된 원천자료는 약 2.7TB, 2만3000여 건으로 친필과 사진, 문서, 음성법문, 동영상 등이 포함돼 있다. 연구회는 중복자료를 선별하고 오래된 음성·영상 파일을 표준 형식으로 변환하는 한편 파일명과 분류체계를 정비해 검색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카이브는 청화 대종사의 삶과 가르침을 '생애·수행·포교·사상' 등 4대 영역으로 체계화한다. 생애는 이재수 교수, 수행은 배 회장, 포교는 조은수 서울대 교수, 사상은 조준호 부회장이 맡아 집필할 계획이다. 향후 법문과 사진·영상·출판물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 플랫폼 '청화넷' 구축도 추진한다.

학술연구도 이어간다. 2027년 제14차 학술세미나는 '청화 대종사 염불선의 역사적 의의와 위상'을 대주제로 열고, 인도불교와 동아시아·한국불교사에서 염불선의 위상을 조명하는 한편 세계 수행문화 속 청화 스님 염불선의 미래를 모색할 예정이다.

청화 대종사의 유품 101건 162점을 중심으로 한 혜운사 청화기념관의 개관과 운영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기념관은 디지털 아카이브와 연계해 수행·교육 거점으로 활용하고, 실상염불선 만일회와 청화사상 불교대학, 순례길 등으로 선양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무상 스님은 "청화 큰스님은 청정한 수행과 정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수행자의 표본을 보여주신 분"이라며 "청화사상연구회가 큰스님의 뜻을 이어 부처님과 조사들의 정통불법을 바르게 펼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학 통한 치유…'금강위크' 개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광명 금강정사 일원서 개최

광명 금강정사(주지 가섭 스님)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내 및 구름산 일대에서 '제4회 문학으로 만드는 마음의 평안, 금강위크(Week)'를 개최한다.

'금강위크'는 불교 철학과 문학·예술을 융합해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고 스스로 내면을 성찰하도록 돕는 금강정사의 대표적인 대중 치유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사찰의 새로운 미래이자 불교문화 보급의 거점이 될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식'도 열려 그 의미를 더한다.

행사 기간 금강정사 경내와 명상길에서는 대중들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내 안에 부처를 켜다'를 주제로 △마음의 원력을 다지는 '불교기도문 쓰기 명상' △간절한 발원을 돌에 새기는 '소원돌멩이 쓰기 명상' △구름산의 자연 속을 걸으며 번뇌를 내려놓는 '걷기 명상' 등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특화 프로그램으로는 10월 18일과 25일 오후 1시 대웅전에서 지안 고요히 메디테이션랩 대표가 이끄는 '싱잉볼 명상-내 안에 붓다를 찾다'가 진행된다. 소리의 공명과 파장을 통해 누적된 스트레스를 정화하고 깊은 이완과 치유를 제공할 예정이다.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하고 삶의 지혜를 전하는 특별한 법석과 강연도 마련돼 있다. 10월 4일 오전 10시 30분 대웅전에서 금강정사 회주 지홍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이어 10월 둘째 주부터는 불광출판사 인기 저자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연 시리즈'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웅전에서 펼쳐진다.

10월 17일 오후 4시 30분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명상힐링 산사콘서트 및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식'이 거행된다.

가섭 스님은 "금강위크는 청정한 '불성(佛性)'의 씨앗을 키우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행사"라며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을 기점으로 금강정사가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문화향유의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여수불교계, 세계섬박람회 성공 응원

향일암 등 5개 사찰 · 보문복지회
입장권 3000만원 구매 약정해
신도 ·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전달



여수불교계가 9월 5일 개막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3000만원 구매 약정식'을 개최하고,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탰다.

여수불교계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탠다.

향일암과 흥국사, 은적사, 달마사, 용문사 등 여수 지역 5개 사찰과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이사장 연규 스님)는 8월 28일 여수시청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갖고 3000만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를 약정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향일암 주지이자 보문복지회 이사장 연규 스님을 비롯해 용문사 주지 해덕 스님, 은적사 혜웅 스님, 김철희 여수불교신도회장, 서영학 여수시장, 김종기 여수세계섬박람회 사무총장, 이준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약정은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의 큰 축제에 불교계도 함께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매한 입장권은 각 사찰 신도를 비롯해 보문복지회 산하 복지시설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사찰과 복지시설이 함께하는 단체관람도 추진해 박람회 참여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여수불교계는 지역 사찰과 복지법인의 참여에 이어 향후 종단과 교구 차원의 협력도 건의할 예정이다.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조계종 총무원과 교구본사 등에 박람회 취지와 여수의 섬·문화 자원을 알리고, 불교계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연규 스님은 "여수섬박람회는 여수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큰 축제인 만큼 불교계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뜻에서 지역 사찰과 보문복지회가 뜻을 모았다"며 "입장권을 신도와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박람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지역 축제에 실질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불교계에서 큰 마음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사무총장을 비롯해 150명이 넘는 직원들이 박람회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문객들이 작은 부분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잘 준비해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돌산 진모지구를 주행사장으로 개도·금오도와 여수세계박람회장 등에서 열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동국사, 전성수 총신도회장 임명

8월 27일 임명장 수여식



군산 동국사(주지 현적 스님)는 8월 27일 총신도회장에 전성수 불자를 임명했다.

주지 현적 스님은 전성수 신임 총신도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새로 취임한 총신도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신도가 한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성수 신임 신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위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말씀처럼 사찰 발전과 신도 화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성수 회장은 군산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심의위원, 군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군산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장,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회 위원, 군산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전북연합신문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은적사, 광명루 개축식 봉행



여수 은적사(주지 혜웅 스님)는 9월 1일 극락전 앞마당에서 '천년고찰 은적사 광명루 개축식'을 개최했다.

광명루는 기록상 1678년 처음 건립된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은적사는 지난해부터 건물을 해체·개축해 주민과 불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혜웅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불자들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신도들과 함께 잘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광명루 개축과 함께 현진 스님 초대전 '부처님, 섬을 치유하다'도 개막했다. 전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광명루에서 이어진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만해 스님 고향 홍성서 정신 기리다

8월 29일, 다례 · 창작시 시상
대상 송현준 '업 심우장에서'



조계종 홍성주지협의회와 불교신문은 8월 29일 홍성 만해 한용운 생가지에서 '만해 스님 탄신기념 다례 및 창작시 시상식'을 개최했다.

종사영반을 통해 만해 스님의 뜻을 기린 이날 행사는 헌향과 헌다에 이어 시낭송과 기념사, 제1회 만해 창작시 공모전 시상과 시노래 공연으로 진행됐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만해 스님의 꿋꿋한 지조와 깊은 통찰은 147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살아 있다"며 "앞으로 행사를 더욱 확대해 만해의 정신을 오늘의 언어와 창작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성주지협의회장 선본 스님은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은 우리 민족의 척주가 됐다"며 만해의 삶과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1회 '만해 창작시 공모전'에는 164명이 492편의 작품을 출품했다. 이 가운데 33편이 본선에 올라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 입선 7명 등 최종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송현준 씨의 '업 심우장에서'가 차지했으며 입선에는 △김동현 '침묵의 꽃' △황명자 '임(恁)' △김학중 '돌죽비를 치다' △김진대 '구름바다' △박기준 '북향화' △김성신 '백담사에서' △류한석 '만해의 집'이 선정됐다. 수상작을 비롯한 본선 진출 작품들은 9월 1일부터 13일까지 홍성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시된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예술로 조명한 '無明'

정선 정암사, '무명의 초상'展
9월 1일~10월 5일 봉은사 등서


가수 김창완의 '붓의 노래2'.

불교의 '무명(無明)'을 예술의 시선으로 풀어낸 전시가 열린다.

정선 정암사(주지 천웅 스님)는 '2026 정선 정암사 회화전'을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 봉은사 보우당과 정선 하이원리조트, 정선 아리샘터에서 순회·개최한다.

'무명(無明)의 초상'을 주제로 한 올해 전시에는 회화·조각·사진·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업해 온 작가 12명이 참여한다. 한국화의 전통을 이어온 직헌(直軒) 허달재와 정종미를 비롯해 김병주, 김창완, 박희섭, 서동욱, 송명진, 원성원, 유화수, 이강욱, 정동현, 차현욱 등이 각자의 조형언어를 선보인다.

주지 천웅 스님은 이번 전시에 대해 "우리가 끝내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흔들림의 자리, 즉 무명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자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지 않던 것들과 마주하는 이 여정이 관람객 각자의 내면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 정암사 회화전'은 9월 1~9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을 시작으로 9월 11~20일 정선 하이원리조트 그랜드 호텔 메인타워, 9월 22일~10월 5일 정선 아리샘터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선운사 도솔암, 백중기도 회향

8월 30일 극락보전서 회향법회



고창 선운사 도솔암(감원 성본 스님)은 8월 30일 도솔암 극락보전 앞마당에서 우란분절 백중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도솔암은 극락보전 앞 특별법단에 대형 반야용선을 설치해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영가시식을 마친 사부대중은 장엄하게 장식된 반야 용선을 선두로 특별 소대로 이동해 소전 의식을 엄수했다.

감원 성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란분절은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되새기고 조상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날"이라며 "오늘 모인 불자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효를 실천하고 이웃을 보살피는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기술보다 AI가 키울 ‘탐진치’ 살펴야”

불교평론, 창간 27주년 심포지엄
AI 전망 · 윤리학 등 다각도 조명
정상교, 現불교 AI담론 문제 제기
“기계 깨달음 아닌 고통 치유 우선”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은 지난 5월 6일 ‘부처님오신날 로봇 수계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수계식 직후 휴머노이드 로봇 스님 ‘가비’를 선두로 탑돌이가 진행되는 모습.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불교가 AI시대에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지점은 SF적 상상력에 추상적인 경전의 비유를 배대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고도화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AI가 우리의 탐진치를 어떻게 교묘하게 자극하고 강화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불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상담·교육·포교를 돕는 도구와 인간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 스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교 대표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은 8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 AI를 만나다’를 주제로 창간 27주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AI에 대한 전망과 과제부터 불교윤리적 조명, 활용 방안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의 조명이 이뤄졌다.

특히 정상교 금강대 교수는 ‘불교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봇 스님의 환상을 넘어’를 통해 불교가 현실적으로 다뤄야 할 AI 문제를 탐진치와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조계사 수계식에서 로봇 ‘가비’가 법명과 연비를 받고, 연등회에서 로봇 도반들이 행렬에 참여한 사례로 제시하며 “현재 불교 AI 담론은 AI가 인간을 지배할지 모른다는 종말론적 AI관을 불교 경전의 추상적 문구와 상상력으로 뒤섞은 채 언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불교계의 AI 담론에는 서로 다른 두 층위가 혼재한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명상 앱과 상담 챗봇, 경전 데이터베이스처럼 인간의 수행과 포교를 보조하는 도구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승려를 대체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상정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정 교수는 먼저 불교와 과학을 직접 동일시하는 관점을 경계했다. 연기·공·유심과 양자 중첩·양자 얽힘 사이에 설명상의 유사성은 있지만, 이는 추상적 비유의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과학은 반복 가능한 실험과 수학적 공식화를 요구하는 반면, 불교의 교리는 수행자의 육체적·정신적 체험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이다.

실제 불교계에서 AI 활용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일본 고다이지의 로봇 승려 ‘마인다’를 비롯해 쿠마가이 세이지 교토대 교수팀의 ‘붓다봇’과 ‘붓다로이드’, 본지의 상담봇 ‘해심이’ 등이 대표적이다.

붓다로이드의 경우 경전에 기록된 붓다와 제자의 대화를 데이터화하고 대규모 언어모델을 결합한 휴머노이드로, 불교학자가 경전과 지식을 선별하고 엔지니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그러나 정 교수는 “현재의 붓다로이드가 합장하고 독경하는 모습은 인생의 고뇌에 답하는 SF영화 속 로봇 스님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초기 단계의 로봇 기술과 AI 챗봇, 기업의 성과 홍보, 언론 보도와 SF영화가 결합하면서 휴머노이드 주지 스님이 곧 현실화할 것 같은 착시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개별 기술은 점에 불과하지만 멀리서 보면 완성된 이미지로 보이는 점묘화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AI시대 불교는 로봇 스님의 수행과 깨달음, 마인드 업로딩 등과 같은 가상의 스토리텔링보다 무엇이 기술적 허상이고 실상인지를 파악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생산성을 높인다고 해도 탐진치에서 파생되는 고통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전제한 정 교수는 “불교가 집중해야 할 ‘공중보건’은 붓다의 출현 이후에도 중생에게 존재하는 탐진치를 방지하고 치료하는 일이지 깨달음까지 획득한다는 휴머노이드 스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구본권 AI와 리터러시연구소장이 ‘인공지능 충격의 원인과 향후 과제’,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가 ‘인공지능, 축복인가 재앙인가’, 안환기 능인대학원대 교수가 ‘인공지능의 인식 체계와 유식론’, 김태수 서울대 학술연구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윤리’,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 종교 환경의 변화’를 발표했다.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등 보물 지정

국가유산청 8월 27일 지정 공고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 등 5건도



보물로 지정된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조선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을 비롯해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 ‘이경윤 필 산수인물도첩’, ‘삼봉선생집 권1’,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 ‘안성 고신왕지’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은 불교미술에서 주로 불화로 그려지던 제석천상을 조각으로 조성한 흔치 않은 사례이다. 2008년 발견된 복장물의 중수 기록과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의 발원문을 통해 적어도 1645년(인조 23) 이전에 조성된 조선 전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의자에 앉은 자세, 통통하고 양감 있는 얼굴, 높이 들어 올린 보계 등에서 고려 후기 양식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조선 전기 불교 조각사 연구 및 당시 복장 납입 의식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은 9세기 말~10세기 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불이다. 손과 신체 일부는 결실됐으나 균형 잡힌 비례와 정제된 조각 수법에서 원형미가 잘 드러난다.

국가유산청은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은 신라 하대 구산선문 중 가장 먼저 세워진 실상선문의 거점 사찰인 임실 진구사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되며, 역사성·예술성·조형성을 갖춘 우수한 작품”이라고 지정의 이유를 밝혔다.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은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총 100권 중 권3에 해당하는 전적이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동일한 권차가 발견된 적이 없는 유일한 판본으로 희소성이 매우 높다.

국가유산청은 “고려시대에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읽을 수 있도록 토를 단 석독구결(釋讀口訣)이 치밀하게 표시돼 있어 국어사 연구에도 귀중한 사료”라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중앙승가대 대학원장에 금강 스님

9월 1일자…“학술 연구 매진”



중앙승가대 신임 대학원장에 금강 스님(불교상담학 전공 교수)이 9월 1일자로 임명됐다.

금강 스님은 “2학기 개강에 맞춰 대학원 교육부와 함께 승가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불교 학술 연구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강 스님은 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8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95년 2월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2021년 중앙승가대 불교상담학 전공 전임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승가대신문 주간, 불교중앙도서관장, 교학처장, 교수협의회장 등 교내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승가교육위원장과 선명상위원장, 고시위원을 맡고 있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은 조계종 종립 승가전문교육기관으로, 2002년 교육부에서 설립인가를 받았다. 대학원에는 불교학과 산하에 불교학·역경학·실천불교학·문화재학·상담학·사회복지학 등 모두 6개 전공이 개설돼 있다. 김내영 기자

동국대, 佛音 담긴 국악공연 한마당

‘한국음악과 제1회 정기연주회’
9월 11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서
영산회상, 사물놀이 등 총망라

불음(佛音)의 맥을 잇는 전통 국악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건학 120주년을 맞이해 오는 9월 11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한국음악과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한국음악과는 2023년 첫 학부 신입생을 맞이한 이래, 대학원 석사·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개설하며 명실상부한 고등 예술 교육 체계를 완성했다. 이번 연주회는 그동안 축적된 교육적 성과와 불교종립대학으로서 정체성을 담아내는 첫 공식 무대다.

총 5부작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의 가장 깊은 뿌리인 불교음악에서 출발해 현대 국악관현악으로 확장되는 우리 소리의 역동적 흐름을 선보인다.

제1부에서는 경건한 예경과 법열을 담은 ‘영산회상과 예불문’이 펼쳐지며 제2부에서는 민중의 희로애락을 품어내는 민속화청, 경·서도민, 정가 등을 만날 수 있다.

제3부에서는 역동적인 신명의 장단인 ‘사물놀이’가, 제4부에서는 웅장한 도약과 예술적 호흡을 담아낸 대편성 ‘국악관현악’이 선보인다. 제5부에서는 대규모 합창과 관현악이 어우러진 ‘교성곡’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무대를 위해 대한민국 국악계를 대표하는 석좌 교수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최고의 명인 및 외래교수진이 여름방학 내내 학생들을 1:1로 밀착 지도하며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는 후문이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건학 120년의 역사 위에서 싹튼 한국음악과가 선보이는 이번 첫 무대는 부처님의 지혜와 법통이 소리의 예술로 승화된 뜻깊은 회향의 장”이라며 “예악당을 채우는 장엄한 울림이 사바세계를 정화하고 한국 음악의 새로운 도약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격려했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www.bs.hanmaum.org | 051)403-7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www.한마음유치원.kr

AI시대 명상 가치 조명…국내외 석학 동국대 집결

동국대 종학연구소, 9월 17~18일 명상국제콘퍼런스

서울국제명상엑스포 학술 행사
수불 · 용타 스님, 수행론 전해
미나스 카파토스 등 석학 참여
과학 · 웰니스서 명상 가치 조명
18일 '심우도' 주제 선명상 콘서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 전반을 바꾸는 시대에 명상이 지닌 인간 내면의 성찰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국제콘퍼런스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9월 1일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와 선명상콘서트의 세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202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대주제로 열리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동국대 본관 남산홀과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콘퍼런스 첫날인 9월 17일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세 차례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 개막식에 이어 오후 1시부터 김지원 BTN 아나운서의 사회로 선지식과 세계 석학의 강연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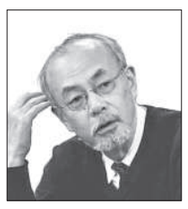
안국선원장이자 동국대 석좌교수인 수불 스님은 'AI시대, 왜 다시 간화선인가?'를 주제로 강연하며, 양자물리학 석학인 미나스 카파토스 채프먼대 전산물리학 석좌교수는 '마음의 본질'을 전한다. 세계적인 율학 전문가인 사사키 시즈카 하나조노대 특별교수는 'AI 사회에서의 불교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술사회에서 불교가 지닌 의미를 조명한다. 사사키 교수는 〈과학의 불교〉 〈인터넷 카르마〉 등의 저술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둘째 날인 9월 18일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다섯 차례 발표가 이어진다. 사회는 AI부디즘연구소장 보일 스님이 맡는다.


수불 스님


용타 스님


미나스 카파토스


사사키 시즈카


사라낭까르 스님


툽텐 텐다르


안희영


유기준

재단법인 행복마을 회주 용타 스님은 '부처님과 해오(解悟)주의'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이어 방글라데시 가야나사라나 불교산림사원 주지이자 비폭력 평화운동가인 사라낭까르 스님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내면의 평화 구축-명상과 자비의 역할'을 발표한다.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과 로드아일랜드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툽텐 텐다르 교수는 '대학생을 위한 자비 교육의 효과'를 주제로 자비교육의 적용과 효과를 소개한다. 안희영 한국MBSR연구소장은 '한국 명상이 나아갈 길을 묻다-전통 불교명상과 현대 마음챙김의 대화'를 발표한다.

마지막 발표자인 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는 '담마 웰니스-불확실성 시대, 불교와 웰니스가 함께 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제로 불교와 웰니스의 접점을 다룬다.

콘퍼런스가 끝난 직후 9월 18일 오후 4시 30분에는 같은 장소에서 '2026 국제선명상콘서트-심우(尋牛), 마음을 찾아 함께 깨어나다'가 열린다. '소리를 따라, 빛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를 부제로 한 공연은 심우도의 수행 여정을 전통음악과 현대음악, 명상, 서예, 미디어아트 등으로 구현한다.

공연은 잃어버린 소를 찾아가는 심우도의 여정을 심우(尋牛)·견적(見跡)·견우(見牛)·목우(牧牛)·입전수수(入廛垂手)의 다섯 단계로 구성한다. 마음을 찾아 나서고, 흔적을 발견하고, 마음을 마주한 뒤 길들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음악과 소리, 침묵으로 표현한다.

프롤로그에서는 공림 스님의 법고와 용희진의 '공' 공연으로 '적멸의 울림, 내면의 고요로 향하는 길'을 선보인다. '심우'에서는 플루트 연주가인 기원 스님이 '볼레로'를 , '견적'에서는 이현아 가야금 연주자와 임시현 서예가가 '정취'라는 공연을 선보인다.

'견우'에서는 전통음악과 명상을 결합한 예술단체 '숲의 그림자'가 생황·양금·가야금·싱잉볼 등을 통해 '달무리', '잔잔한 호수', '하나의 울림' 등을 공연하며 목우에서는 기원 스님이 'G선상의 아리아'를 전한다. '입전수수'에서는 조계종 선명상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가 '차 한 잔 마셔요'와 '마음을 바라봐요'를 선보이며 출연진이 함께 하는 '빛나는 마음'으로 공연을 회향한다.

인경 스님과 진정 스님은 명상지도자로 참여해 관객의 호흡과 소리 알아차림을 안내한다. 관객은 음악을 감상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소리와 침묵을 따라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듣는 수행'에 참여하게 된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명상체험부스에 이어 명상콘퍼런스와 선명상콘서트로 계속된다"며 "콘퍼런스에서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과 '웰니스적 선명상의 가치'를 주제로 이틀간 논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선명상콘서트에 대해서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데 중점을 뒀던 이전 행사와 달리 올해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성했다"며 "선과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해 온 이들이 참여해 '마음을 찾아서 떠나는 심우도'를 주제로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㊺ 육결일해(六結一解)

얽힌 매듭을 푸는 비법

六 結 一 解

〈능엄경(楞嚴經)〉 제5권에는 마음의 번뇌와 해탈의 원리를 일깨우는 명쾌한 비유가 나온다. 부처님께서 시자 아난 앞에 부드러운 비단 수건 한 장을 펼쳐 보이셨다. 그리고 아난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건의 한쪽을 잡아 첫 번째 매듭을 묶고, 이어 차례로 여섯 번째 매듭까지 묶으셨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이 매듭들을 한꺼번에 풀 수 있겠느냐?"

아난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매듭은 순서대로 묶였으므로 풀 때도 묶인 역순으로 하나씩 풀어야 합니다. 또한 매듭이 어떻게 묶였는지 그 결을 잘 아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육결일해(六結一解)'의 비유다. 부처님께서 묶으신 여섯 매듭은 우리의 여섯 감각기관, 곧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의 육근(六根)을 상징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감각의 통로는 본래 맑고 자유롭다. 그러나 눈앞의 대상에 마음을 빼앗겨 집착과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 마음에는 번뇌의 매듭이 생겨난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극적인 정보에 눈이 붙들리고, 타인의 평가에 귀가 흔들리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념에 마음이 매인다. 감각이 바깥을 향해 열려 있을수록 외부의 작은 바람에도 삶 전체가 흔들린다. 마음의 혼란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매듭은 단단해진다. 먼저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매듭이 사람으로 인해 묶였으니, 풀어내는 것 또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結由因人 解亦在人)."

나를 묶은 것은 세상이 아니다. 세상을 대하는 내 마음이 스스로 매듭을 지은 것이다.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바깥으로만 향하던 감각을 거두어들이고 내면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눈과 귀로 들어오는 자극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안의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보아야 한다. 어디에서 집착이 생겨나는지, 어떤 생각이 나를 흔드는지를 하나씩 알아차리다 보면 단단히 조여 있던 마음의 매듭도 조금씩 느슨해진다.

〈쌍윳따 니까야〉에서도 감각기능을 단속하는 수행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수행자가 감각기능을 단속하는가?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볼 때 그 표상(전체적 특징)에 취하지 않고 세부적인 특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만일 눈의 감각기능을 단속하지 않고 머문다면 탐욕과 근심이라는 악하고 불선한 법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묶인 마음은 하나씩 풀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묶이지 않는 것이다. 〈회순 불암사 주지〉

불중박,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현장교육

9월 16~17일 경주 일원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경주 일원에서 '2026년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다량소장처 사찰의 스님과 문화유산 소장자·관리자들이 문화유산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역사적 가치와 전승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보존·관리 업무와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주 남산과 분황사·황룡사지, 국립경주박물관을 차례로 답사하며 불교문화유산이 형성된 역사적·공간적 배경과 그 가치를 이해하고, 문화유산을 오늘날 어떻게 보존하고 전승해 나갈 것인지 현장에서 함께 살펴본다.

9월 16일에는 김동하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사와 함께 경주 남산 삼릉계곡 일대에 분포한 불교 유적을 직접 답사하며 신라 불교문화의 역사적 의미와 자연환경 속에 조성된 불교문화유산의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현장답사 이후에는 교육 참가자들이 각 다량소장처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경험과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한다.

9월 17일에는 분황사와 황룡사지를 찾아 신라 왕경의 불교문화와 사찰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하여 상설전시와 특별전 '황룡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를 관람할 예정이다.

불교중앙박물관은 "현장에서 얻은 이해와 경험을 각 다량 소장처의 보존·관리 업무에 적용해 문화유산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전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재

마음의 평화, 가족의 행복,
소중한 인연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49일간의 기도

■ 입 재 | 2026년 9월 6일(일) 오전 9시 30분 (진관사 함월당)
■ 회 향 | 2026년 10월 24일(토)~25일(일) 오전 9시 30분
(진관사 대웅전 야단법석)
■ 기도접수 | 02-359-8410

교통편 | 기도기간 중, 연신내역(3호선)에서 진관사 셔틀버스 운행합니다.
(평일 오전 9시~10시 / 일요일 오전 8시~11시)

진관사 수륙재 기간 동안
매주 일요일 칠칠재가 봉행되며,
큰스님 법문이 있습니다.


칠재[회향] 10. 24 토요일
성파 종정예하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무량무변 세계 중에
극락세계가 제일이라


입재 9. 6 일요일
법산 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법계위원장
인생 총론:
세상 공부, 부처님 공부


사재 10. 4 일요일
자광 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장
그물에 걸리지 않는
사람처럼 잘 사는 법


초재 9. 13 일요일
혜국 큰스님 석종사 조실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다


오재 10. 11 일요일
보선 큰스님 해남 대흥사 조실
함께 가는 길: 同行和敬


이재 9. 20 일요일
종범 큰스님 전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우리 시대의 용서와 화해:
慈能與樂 悲能拔苦


육재 10. 18 일요일
성우 큰스님 전 대한불교조계종 전계대화상
가족을 이루는 큰 인연과 공덕


삼재 9. 27 일요일
본각 큰스님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의 의장
큰 사람을 작게 하고 작은 사람을 크게 하는 법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2~9/8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독송본 한문한글역 대방광불화엄경 제1권	수미해주	담앤북스	6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51	여천무비	담앤북스
2	사람이 부처님이다	무비	불광출판사	7	스님의 맛	장보배	모과나무
3	무비스님의 초발심자경문 강설	무비	조계종출판사	8	무량수경	김현준	효림
4	공양간의 셰프들	계호 외	생각의힘	9	무영수 영원의 나무	금강	담마북스
5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10	법구경 마음공부	정운	유노북스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법구경이야기(3)	무념,응진 역	옛길	6	니까야강독2	각묵,대림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2	가시를 거두세요	광우	쌤앤파커스	7	나는 누구인가	라마나 마하리쉬	청하
3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중관학 특강	김성철	오타쿠
4	무아와 일심	한자경	김영사	9	불멸(1)	이각 지음	지혜의눈
5	탁! 깨달음의 대화	법륜	정토출판	10	숨을 쉬세요. 당신은 살아있어요	틱낫한	운주사

"덤으로 받은 삶, 생명나눔으로 회향"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일면 스님 지음
민족사
1만7500원

일면 스님 팔순 회고록 출간
삶의 궤적과 생명나눔 여정
"살아있음, 누군가의 은혜 덕"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지금은 덤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후 축구로 치면 '연장전'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인 일면 스님의 삶은 간이식 수술 전후로 나뉜다. 수술 전까지는 인생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름 모를 청년의 간 기증으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그 숭고한 정신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여생은 오롯이 남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다.

26년 전 얻은 '두 번째 삶'을 생명나눔을 위해 정진해 온 일면 스님이 팔순을 맞아 회고록 〈생명나눔, 일면입니다〉를 펴냈다. 8월 31일 서울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스님은 "한 생을 돌아보니 만났던 모든 인연이 부처님이었고 은혜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책은 유년 시절의 출가부터 수행, 종단 소임과 군포교 활동은 물론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생명나눔 운동까지 80년 삶의 궤적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특히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은 스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은혜'라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회향의 삶을 상세히 기록했다.

젊은 시절 배구 선수를 할 만큼 건강했던 스님에게 시련이 찾아온 것은 1982년. 선진 복지를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준비하던 중 몸의 피로를 느껴 찾은 병원에서 병을 발견하게 됐고, 이후 1999년 간경화로 2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이생의 인연을 정리하려던 때 뇌사자의 장기 기증 덕분에 간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8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면 스님이 신간 〈생명나눔, 일면입니다〉를 소개하고 있다.

수술 직후 간병인 몰래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물을 흘린 뒤 창밖 풍광을 바라보았던 순간은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 꽃다운 스물두 살에 세상을 떠나며 새 생명을 준 이름 모를 청년을 '선재 영가'라 부르고 그의 몫까지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스님은 부처님이 영겁의 세월 동안 축생으로 화현해 자신의 몸을 보시하는 등 삼악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자비행을 실천한 뜻을 되새기며, 두 번째 삶을 '아픔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바치겠다'고 서원했다.

스님은 2005년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법장 스님이 갑작스레 입적하자 차기 이사장에 추대됐다. 이후 약 20년간 환우 1300여 명을 위한 모금과 치료비 지원, 수술 연계를 이어오며 불교의 자비행인 '하화중생(下化衆生)'을 펼쳐 왔다.

스님은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가 6만여 명에 달하지만 국내 뇌사자 기증 비율은 5% 수준으로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며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함께해 준 인연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겉으론 수행자다운 척을 했을지 몰라도 참된 수행자였는지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인연 따라 왔다, 부처님 은혜로 덤벙덤벙 살다가 인연 따라 간다'는 열반송을 생각하고 있어요. 남은 삶 동안 59점짜리 인생을 60점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겁니다."

"비어 있기에 온 우주와 연결된다"



11차원의 마음풍경

이형근 지음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2만원



여는 순간 사라진다

이형근 시집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1만3000원

이형근 시인의 에세이 · 시집
물리학과 불교 사유 풀어내

'나는 누구인가.' 이 오래된 물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하다. 이형근 시인은 신작 에세이집 〈11차원의 마음 풍경〉과 시집 〈여는 순간 사라진다〉를 통해 이 질문을 현대 물리학과 불교철학, 시적 언어의 경계에서 다시 던진다. 두 책의 밑바탕에는 '연기(緣起)=공(空)'이라는 하나의 사유가 흐른다.

〈11차원의 마음 풍경〉은 양자역학과 11차원 초끈이론을 불교의 연기와 공 사상에 비춰 새롭게 해석한다. 저자에게 '연기'는 우주와 자연, 인간을 서로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관계하고 변화하는 하나의 유기적 세계로 바라보는 존재론적 원리다.

그가 현대 물리학에 주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가 확고한 실체라고 믿는 세계가 실제로는 관계와 가능성 속에서 드러나며, 관측과 인식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현대 물리학의 연구 결과가 고정된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의 공 사상과 사유의 접점을 이루기 때문이다.

에세이의 사유는 시집에서 보다 압축적이고 직관적인 언어로 변주된다. 제목 '여는 순간 사라진다'는 무언가를 규정하고 붙잡는 순간, 그것의 본래 모습을 놓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그의 시에서 '공(空)'은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해 생겨나는 가능성의 자리다. 나를 고정된 실체로 붙잡지 않을 때 타자와 세계를 받아들일 공간이 생기고, 나와 세계의 경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더 넓은 존재의 관계망이 보인다는 것이다.

여수령 기자

어린이 눈높이로 풀어낸 〈아함경〉



유리 거문고를 타는 음악의 신 반차익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엮음
대양미디어
1만5000원

불교 초기 경전인 〈아함경〉은 석가모니 부처님 입멸 후 제자들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如是我聞)'며 기억을 되살려 정리한 최초의 경전이다. 인간의 삶과 고뇌, 깨달음에 대한 깊은 통찰은 물론,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 연기법(緣起法) 등 불교의 핵심 교리를 담아 불교 공부의 입문이자 완성으로 꼽힌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이 담긴 〈아함경〉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 동화집이 나왔다.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권영주, 이하 문학회)가 조계종 문화부의 지원으로 발간한 18권째 동화집 〈유리 거문고를 타는 음악의 신 반차익〉이다.

한국불교아동문학회 18권째 동화집
소속 작가 48명 집필 총 51편 수록

이번 신간은 〈아함경〉 중에서도 긴 경전을 모은 〈장아함경(長阿含經)〉(22권 30경)과 별역 단행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장아함경〉은 기승전결이 뚜렷한 서사 구조와 비유, 상징을 갖추고 있어 한 편의 대서사시나 연극을 연상시킨다. 부처님을 신격화된 존재를 넘어 인간적 고뇌와 자애로움을 지닌 완성된 인격체로 묘사한 점도 특징이다.

이번 책에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 있다. 욕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하면 마음이 밝아진다는 깊은 교리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냈다.

동화집에는 권영주 회장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퀴', '금관을 뚫고 나온 발'을 비롯해 문학회 소속 작가 48명이 집필한 총 51편이 수록됐다. 표제작인 홍재숙 작가의 '유리 거문고를 타는 음악의 신 반차익'은 〈불설장아함경〉 제10권 제2분 '석제환인문경 제10'을 바탕으로 제석이 부처님께 원한의 원인을 물으며 괴로움의 뿌리를 깨닫고 음악의 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렸다.

김일환 고문의 '하늘을 날던 사람들'은 광음천의 존재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탐욕에 빠지면서 신통력과 몸의 빛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다룬다. 탐욕이 내면의 본성을 가리고 소유할수록 집착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각 단편은 아이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5쪽 안팎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전태일 통신〉과 '웹진 문화 다' 등에 작품을 연재한 전솔이 일러스트레이터의 삽화도 더해 이해를 도왔다.

다만 그림보다 텍스트 비중이 높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에게 적합하다.

문학회는 경쟁과 불안, 정서적 고립이 심화된 오늘날, 이번 동화집이 어린이들에게 마음을 돌보는 지혜를 전하고, 분노를 다스리며 상생하는 삶의 태도를 일깨울 것으로 기대했다.

권영주 회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회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냈다"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나눔과 배려, 바른 마음의 소중함을 익히고 더 따뜻하고 밝은 마음을 키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982년 설립된 문학회는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심성을 갖추도록 2009년부터 경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동화책을 꾸준히 간행해 왔다.

배희정 기자

제 55차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하오며,
제방에서 각자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수행정진과 교화에 매진하고 계신 2천여 동문스님들.
유난히 무덥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이제 서늘해진 가을날 서로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한마음으로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불기2570(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오후 1시
장소 운문사 청풍료 주 최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안건 • 의료비 지원에 관한 안
• 동문회 차기 회장 승인 안
• 모교 발전과 화합을 위한 기타 안
문의 054)372-8800(운문사 종무소)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무영 합장

‘님의 침묵’ 100주년…만해 삶·정신 되짚다



한용운의 꿈과 빛이 서린 처(處)·인(人)·서(書)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편찬
불광출판사
5만원



시집 ‘님의침묵’과 만해 한용운
이선이 지음
소명출판
2만9000원





〈님의 침묵〉 초판본 속표지(사진 왼쪽)와 오세암 관음전.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특별전 도록…생애·사상 재구성
장소·사람·책 키워드로 삶 조명
친필 원고와 신규 자료 한자리

저자의 세 번째 만해 연구서
형식 미학과 연구사 등 망라
‘기룸’ 자비 실천으로 재규정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은 1924년 가을 소설 ‘죽음’을 썼다. 마흔 중반을 넘긴 나이에 ‘죽음’의 문제를 마주한 스님은 이듬해 오세암으로 돌아와 〈십현담주해〉를 집필한 뒤 88편의 시를 탈고했다. 이 시들은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맞은 올해 만해 스님의 삶과 저작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신간 두 권이 출간됐다.

〈한용운의 꿈과 빛이 서린 처(處)·인(人)·서(書)〉는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언론인으로 살았던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다각도로 재구성한 특별전의 도록이다. 청년기부터 애국자, 선객, 문사, 오세인, 독립지사, 지도자, 자유인에 이르는 삶을 9장으로 나누어 조명한다. 기존 연대순 유물 나열 방식의 일반적 도록과 달리 책은 그가 머물렀던 장소[處], 삶과 사상에 영향을 주고받은 사람[人], 읽고 남긴 책[書]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한용운 스님의 삶을 좇아간다.

백담사와 오세암, 건봉사를 거쳐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 이르는 공간적 궤적과 스승·도반·동지 등 인연을 맺은 사람들, 〈조선불교유신론〉 〈불교대전〉 〈님의 침묵〉 등 주요 저작을 통해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친필 이력서와 서간, 유묵, 저작 초판본 및 시대별 〈님의 침묵〉 판본 등의 자료를 한자리에 모았다. 일종의 ‘시각적 평전’인 셈이다. 특히 기존 연구 정리에 그치지 않고, 매천 황현 추모 유묵 ‘매천선생’과 벽초 홍명희에게 보낸 서간문,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의 여러 버전을 비교·검토해 사실관계를 정립한 최신 연구 성과까지 담아 학술적 가치를 더했다.

이선이 경희대 한국어학과 교수의 〈시집 ‘님의 침묵’과 만해 한용운〉은 내용 분석에 치중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깨고, ‘님의 침묵’의 형식적 특징과 연구사, 인적 관계망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연구서다. 종교·문화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문화운동가로서의 실상을 부각하며 시집의 현재적 가치를 재해석했다.

책은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시집 ‘님의 침묵’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고, 창작 동기, 시어 ‘검’과 화쟁론적 읽기 등을 통해 시집의 의미를 조명한다. 2부에서는 한시부터 시조, 자유시로 시적 형식을 넓힌 시승 한용운 스님이 당대 인적 관계망 속에서 어떻게 역사적 주체인 ‘시민’으로 자리매김했는지 고찰한다.

저자는 그간 간과됐던 형식적 미학에 주목해, 초간본의 갈색 앞표지에 제목과 디자인이 전혀 없고 책등에만 금박 수기로 제목을 새긴 점을 들어, 이를 ‘앞표지에 제목과 디자인이 없는 최초의 근대 창작시집’이라고 평가한다. 책등의 제목은 ‘님의 沈默’으로 적었으나 본문에서는 ‘沈默’으로 ‘묵’ 한자를 다르게 표기한 점도 주목할 대목으로 꼽는다. 아울러 마침표를 생략하고, 쉼표·물음표·느낌표를 최소화한 점은 운율의 묘미를 살리는 전략으로 풀이한다.

저자는 시집 서문인 ‘군말’의 첫 문장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에는 작품 전체를 관류하는 세계관이 압축돼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기룸’을 사랑과 연민을 품은 불교의 ‘자비(慈悲)’로 해석한다. 저자는 ‘기룸’을 존재의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자비심을 실천하는 행위로 재규정하며, 이를 불교적 사유와 식민지 현실 속에서 고통에 공감하고 회복을 지향한 한용운 스님의 시적 태도, 즉 ‘기룸의 시학’으로 명명한다.

나아가 벽초 홍명희와 천도교계 인사 등 당대 인적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몽양 여운형과의 민족독립 인식 비교, 시기별 발표 매체 분석 등을 다룬다.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맞아 출간된 두 책은 ‘시인’이라는 틀을 넘어 시대와 불교, 문학과 사회를 아우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2026 세종도서’ 불교 관련 18종 선정

불교 주제 교양 7종 · 학술 7종
동국대 출판문화원 등 4종도

‘2026 세종도서’에 불교 관련 책 18종이 선정됐다. 불교 주제·내용 도서가 교양 7종, 학술 7종 등 총 14종이며, 불교 관련 출판사 도서도 4종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도서 지원사업은 출판 의욕을 높이고,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 도서를 선정·보급한다. 올해는 총 6844종이 접수돼 교양 429종, 학술 345종이 8월 25일 최종 선정됐다.

교양 부문은 4650종 중 429종이 뽑혔다. 이 가운데 불교 관련 주제·내용 도서는 △거울 속의 물고기(조계종출판사, 백진순) △뇌과학자가 본 붓다의 마음(조계종출판사, 문일수) △붓다, 불안을 말하다(그린비출판사, 이충현) △염주의 역사와 수행 이야기(조계종출판사, 태경 스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불광미디어, 목경찬) △시뮬라크르 AI붓다: 가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솔과학출판사, 윤용진) △선생님, 지도엔 없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죠(불광미디어, 노승대) 등 7종이다. 불교 관련 출판사 도서는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의 〈사실은 어디에 있는가〉(사와 야스오미, 이홍천)와 〈신유물론과 SF 미학〉(홍은숙), 도서출판 중도의 〈숲에서 답을 얻다〉 3종이 포함됐다.

학술 부문은 2194종 중 345종이 뽑혔다. 불교 주제·내용 도서는 △종교와 과학(열린서원, 우희종 외 8인) △신중도의 세계(불광미디어, 현주 스님) △한국 선불교의 교육사적 근원(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진창영) △사운다라난다: 아름다운 난다의 이야기(도서출판 씨아이알, 아쉬바고샤, 류현정, 최지연) △원측 사상의 해석학적 연구(도서출판 씨아이알, 장규언) △불교와 에크리튀르(운주사 너울북, 시모다 마사히로, 박현진) △천장: 티베트의 죽음의례(도서출판 씨아이알, 심혁주) 등 7종이다. 불교 관련 출판사 도서로는 〈금나나 교수의 쉽게 배우는 역학 이야기〉(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금나나)가 선정됐다. 선정 도서는 10월~11월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된다. 배희정 기자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는 길



이제야 부처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정준영 지음
김영사
1만8000원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지나간 일은 놓지 못하면서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할까.” 불안과 후회, 상실과 집착으로 흔들리는 이들을 위한 불교 입문서가 나왔다. 초기불교 연구자이자 명상지도자인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쓴 불교 입문서 〈이제야 부처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돈과 일, 관계와 노후, 이별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고통에 답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책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四聖諦, 고집멸도)의 흐름에 따라 현대인이 겪는 다양한 괴로움을 4부에 걸쳐 점검한다. 이를 통해 삶의 무게를 붙잡고 있는 마음의 작용을 살피고, 부처님이 설하신 ‘고통 없는 삶’이 아닌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는 길’의 통찰을 현실의 언어로 풀어낸다.

‘고집멸도’에 따른 4부 구성
다양한 고통에 전하는 지혜

1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에서는 삶의 구체적인 고통을 마주하고(고성제), 2부 ‘내 마음은 왜 나를 괴롭힐까’에서는 집착이 불안과 고통을 만듦을 설명한다(집성제). 3부 ‘놓아버리면 정말 자유로워질까’에서는 붙잡지 않을 때 열리는 평온을 다루며(멸성제), 4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드는 부처의 길을 제시한다(도성제).

저자는 불안에 대해 “불안을 없애려는 마음이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며 ‘이치에 맞게 주의를 기울여 보는[如理作意]’ 자세를 강조한다. 반복되는 후회에 대해서는 와칼리 존자에게 자신의 썩어가는 몸뚱이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던 부처님의 일화를 통해 생각 자체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탈중심화’ 연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화와 죽음 역시 삶을 위협하는 불청객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이치로 받아들일 때 상실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한다.

나아가 이별은 욕망의 불길을 끄고 그 자리에 고요한 ‘자애’를 심어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신호라며, 타인을 향했던 시선을 거둬 자신의 상처를 닦고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평온을 만날 것이라고 조언한다.

물질적 결핍의 고통을 깊이 이해했던 부처님의 ‘현실주의자’로서의 면모도 함께 조명해 눈길을 끈다. 부처님은 가난이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질병’으로 봤다면서 정당한 노력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올바른 노동으로 얻은 소득의 절반은 생업과 사업 투자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가족의 삶과 비상시 대비용 등으로 나눠 삶의 기반을 다지라고 조언한 부처님의 ‘사분법(四分法)’에 주목한다. 또 이를 “부처님은 정당한 소유를 통해 삶의 기본권을 확보하고, 그 안정감 위에서 더 높은 차원의 평온인 ‘열반’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신 것”이라고 해석한다.

정준영 교수는 프롤로그를 통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이 과연 시대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간 근본의 문제인지 물어보라”면서 “기술적 문제라면 AI가 더 명확한 답을 주겠지만, 존재에 대한 근원적 갈증이라면 2500년 전 초기 경전 속 부처님의 제안이 가장 현대적인 실마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희정 기자

동국대학교출판문화원 2026년 세종도서 4종 선정!!
연구는 책이 되고, 책은 교육이 되며, 교육은 미래가 됩니다.

“선불교의 전개를 ‘교육사’라는 新관점에서 접근”



학술 부문
한국 선불교의 교육사적 근원
진창영 지음
판형 152×224 | 값 32,000원

“시각자료 활용,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



학술 부문
금나나 교수의 쉽게 배우는 역학 이야기
금나나 지음
판형 188×257 | 값 45,000원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은 함께 흥하고 함께 망한다”



교양 부문
사실은 어디에 있는가
이홍천 옮김
판형 127×188 | 값 20,000원

“미래 문명의 사유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교양 부문
신유물론과 SF미학
홍은숙 지음
판형 152×224 | 값 21,000원

2024년 세종도서 5종 선정


고구려 유민 이정기 일가의 번진사
정병준 지음


기신론별기
김천학 외 지음


산사에서 찾은 보물이야기
이분희 지음


뮤직코노믹스
지인엽 지음


자유의 도시 올드 상하이
김양수 지음

2025년 세종도서 2종 선정


선으로 읽는 도덕경
안호영 외 지음


대승불교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한지연 지음

문의 동국대학교출판문화원 Tel 02-2264-4714 Fax 02-2268-7851 e-mail abook@jeongjincorp.com

나를 위해 대처하되 참회도 하라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⑰ 자신을 지키지 못함 참회의 주의 사항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주의 사항

'자신을 지키지 못함' 참회와 다른 항목의 참회를 혼동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 즉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자기가 탐진을 일으켜 남에게 피해를 끼쳤는데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해 참회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탐욕이나 분노를 정당화하게 되면서 악업이 쌓이게 된다. 반대로 화를 내더라도 자신을 지켜야 하는 일에 대해 탐진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합리화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었을 때, 자신의 행위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어느 기준을 적용해서 참회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쉽게 판단되지 않을 때는 절을 계속하면서 생각해 보면 대부분 알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사안에서 이 두 가지 참회가 다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그 일의 진행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서 참회 기준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싸웠다고 하자. 이럴 때는 구업 중에서 욕설(악구)의 업을 지었고, 의업 중에서 성냄(진)의 업을 지었으므로 악구와 성냄을 먼저 참회한다. 설사 내가 옳았다고 해도 이것은 분명히 악업이므로 참회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래와 같이 '신구 관련 탐' 참회와 '자신을 지키지 못함' 참회의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적용해 참회한다.

첫째, 싸운 이유가 자기의 명예나 재산, 이익 등의 탐욕에 해당하는 마음에 있었다면 '신구 관련 탐'을 참회해야 한다. 그러나 싸운 이유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일에 있었다면 '신구 관련 탐'은 참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비록 다투기는 했지만 자신은 정당했고 그 결과가 자기의 적극적 주장이 부족해 손해 보는 식으로 끝내고 말았다면 '자신을 지키지 못함' 참회를 해야 한다. 즉 그 당시 자신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심하게 다투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참회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참회를 진행한 다음, 참회가 끝나고 난 뒤에 각각의 참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탐욕이 앞섰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을 지키는 데 소극적이었는지 잘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판단을 참고해서 대비하면 된다. 즉 탐욕이 앞섰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또 사전에 준비할 일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한다.

이렇게 대응해 보고 또 문제점이 나타나면 다시 참회를 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수정해 가면 된다.

탐욕 앞섰던 부분에는 자제하려 하고
자신 지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 다짐도

상대 불문하고 피해 받은 일 참회 대상
좋은 의도라도 고통 시 대응 모색해야

때론 부당함 지적하고 때론 다투면서
극단적 사태 없이 자기 입장 개진해야

◈ **무조건 참아야 하는 상대는 없다**

흔히 부부나 부모 자식과 같이 가까운 사이나, 사제 간이나 직장 상사 등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이나 피해를 당해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참아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참는 것도 정도 문제이지,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을 때는 무조건 참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지키지 못한 일이 생겼다면,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누구이든 그 일은 전부 참회 대상이 된다. 그 상대방에는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 친척이나 친구뿐 아니라 동료, 선후배, 스승, 정치가, 성직자 등 사회적 지위나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가깝고 먼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다. 아무리 가깝거나 고귀한 신분의 사람에게라도 자기가 피해 보는 것을 무조건 용인해서는 안 된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친목회나 조직, 회사, 정부 등 단체나 기관도 포함된다.

설사 상대방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라고 해도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정도 이상의 피해나 고통이 있다면, 억지로 참아서는 안 되며 대응을 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다른 사람과 다투는 연습이 필요하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또는 이웃 등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나에게 피해나 고통을 주거나, 또는 이들과 갈등이 있을 경우에 대응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조목조목 따져서 그 부당함을 지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치 보기나 소리 없는 기싸움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화를 내거나 다퉈야 할 때도 있다.

그런데 대응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중에서 특히 화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평소에 화낼 일이 별로 없어서 화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칫하면 화를 내서 문제의 해결보다는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퉈야 할 일이 있는데도 다툼을 회피하게 되면 상황이 계속 악화돼 나중에는 극단적인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 허약함이 심해져서 무기력한 사람이 되거나, 가슴에 깊은 한이 쌓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극단적인 사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화를 내거나 다투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노래방 같은 곳에 가서 고함을 지르며 연습하는 것이 좋다. 화가 나면 먼저 말문이 막혀 말이 잘 안 나오는 체질이라면 미리 꼼꼼하게 대사를 준비해서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연극하듯이 여러 번 연습해야 한다. 또 상대에게 화를 내더라도 상황에 따라 점차 목소리를 높여야지, 처음부터 고함을 질러서는 안 되는데, 이 역시 연습하면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명심할 점은, 자기 혼자서 연습삼아 화를 냈다고 해도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참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화에 대한 악업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좋은 일을 위해 화를 내든지 연습으로 화를 내든지 간에 화를 낸 것은 분명히 악업이므로 반드시 참회해야 한다. 그리고 그 참회는 가능하면 화를 낸 그날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시간이 흐르면 악업이 업장(業障)으로 굳어져서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화를 내고 나서 또 참회를 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밝혔듯이 현실에서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대처는 하되 악업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를 낼 때는 내더라도 참회를 하라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참회를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비록 수행이 높은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불자라고 해도 현실을 최대한 안정되게 유지하면서 자신의 신행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알지 못하면 불교 신행을 할수록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더욱 피곤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불교에 대한 신심이 후퇴할 수도 있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내 손으로 세우는 금강경 보탑
金剛般若波羅蜜經寶塔寫經
금강반야바라밀경 보탑 사경
한문사경본



자현 엮음 | 72쪽 | 사철제본 | 8,000원

내 손으로 새기는 금강경(金剛經) 보탑(寶塔)
마음에 새기는 금강의 지혜!

사경 시 바른 마음가짐과 올바른 순서를 담은 자현 스님의 친절한 설명
수행의 시작부터 회향까지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여법한 구성
책날개, 사철제본 등 사경 수행에 최적화한 세심한 설계

"지금까지 이런 사경집은 없었다!"

한국불교의 오랜 전통인 〈금강경탑다라니〉를 계승·재해석하여
'사경 수행의 기쁨'과 '보탑 조성의 환희'를 함께 경험하는 특별한 순간!

☆★☆ 추천의 말 ☆★☆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견고한 지혜의 경전, 『금강경』을 사경하면 금강반야의 지혜로 모든 재앙은 파괴되고, 복된 선함은 날로 증장됩니다. _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선사

『금강경』을 정성껏 써내려가는 동안 집착은 부서지고, 마음의 어둠을 물러가니, 성불로 나아가는 그 귀한 길에 이 사경집을 곁에 두고 정진하기를 권합니다. _ 대강백 여천 무비 대종사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소영 보리수아래 회원 · 예술 활동가

발랄한 소영 씨의 '몸으로 쓰는 시'

〈詩〉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시 · 작사에 이어 '춤'으로 세상 소통
한 동작 위한 수천번의 연습 · 노력
'자등명 법등명' 되새기며 춤 수행
"꿈은 부처님 마음 표현한 춤 공연
…저마다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박지운 기자 vjw33@hyunbul.com

캄캄한 공연장. 무대 위 한 무용수에게 핀조명이 비친다.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무대의 주인공 김소영(38) 씨가 천천히 몸을 움직인다. 허공에 원을 그리듯 팔을 뻗는다. 간단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소영 씨에게는 온 힘을 다해야 가능한 움직임이다. 곧게 서는 것조차 쉽지 않은 몸으로 손끝 하나에 집중한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 무용을 하지 못할까 봐 휠체어를 타라는 의사의 권유도 마다했다. 무대 위에 서기 위해 수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다른 사람이 10번 연습해 익힐 동작을 100번, 1000번 연습해야 했다. 그렇게 한 동작 한 동작 몸에 새겼다. 그리고 그 노력의 시간이 무대가 됐다.

다큐멘터리 영화 '소영의 노력'은 그렇게 춤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뇌성마비 장애인 김소영 씨의 시간을 담았다.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술상, 제16회 광주여성영화제 장편 관객상, 제8회 서울무용영화제 베스트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으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소영 씨는 자신을 '장애인 무용수'라고 소개하지 않는다.

"그냥 무용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소영 씨는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며 사람들을 만난다. 하지만 처음부터 활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다. 20대 초반까지 소영 씨는 복지관과 집을 오가고 집 근처 화계사를 다니며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던 불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도반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 "누나, 장애인 불자들이 모여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들어올래?" 소영 씨는 모임 이름부터 물었다. "이름이 뭐야?" "보리수아래."

그렇게 보리수아래와 인연을 맺었다. 평소 글과 사람을 좋아했던 소영 씨에게 보리수아래 활동은 삶의 새로운 문을 열어줬다. 시를 쓰고 낭송하고 노래를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공연'이다.

"'보리수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공연'에서 도반들과 스님들이 함께 시 낭송을 했던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기억에 오랫동안 남고 그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당시 낭독했던 시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작품은 '한 조각 사랑 편지'다. 한 장만 남은 편지를 바라보며 어디론가 사라진 나머지 한 장의 편지를 상상하며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다. 그리움과 기다림이라는 감정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소영 씨는 공동시집 〈단 하나의 이유까지〉, 아시아 장애인 공동시집 〈우리가 바다 건너 만난 것은〉 등에 참여했고, '꽃과 별과 시' 등의 작사가로도 활동했다.

시와 글, 노래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세상과 소통하던 소영 씨에게 어느 날 또 하나의 언어가 찾아왔다.

'춤'이었다.



영화 '소영의 노력' 포스터. **사진 출처=필름다빈**



김소영 씨(왼쪽)가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에서 시낭송을 하고 있다.



보리수아래 회원이자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영 씨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함께 오랫동안 신나게 호흡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 소영 씨는 매일 부처님께 기도드리며, 오늘도 춤 연습을 통한 자신만의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30대 초반이던 2019년,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교육 프로그램에서 정희정 무용가를 만났다. 처음부터 무용수를 꿈꾼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춤을 경험하면서 무대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 "계속 무대에서 춤추고 싶어요." 소영 씨는 정희정 씨에게 공연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건넸다. 그리고 2023년, 기다리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소영아, 무용 다시 할래?" 소영 씨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네! 할래요!" 정희정 씨는 소영 씨의 이런 모습을 "끈질기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 끈질김이 결국 소영 씨를 다시 무대 위에 세웠다.

본격적으로 무용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등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다. 정희정 씨와의 인연은 오재형 감독과도 이어졌고, 소영 씨가 춤을 배우고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은 다큐멘터리 영화 '소영의 노력'으로 기록됐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소영 씨는 일반 무용수가 10번의 연습을 할 때 100번, 1000번의 연습을 해야만 생각했던 동작을 할 수 있다. 동작을 기억하고 몸으로 재현하는 데 더 많은 반복이 필요했다. 안무의 동선과 동작을 정확히 외워야 현장에서 스태프들도 그에 맞춰 움직일 수 있었다.

소영 씨는 선생님의 칭찬조차 경계했다. 칭찬에 도취돼 노력을 하지 않아 춤을 못추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초심과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거듭된 연습으로 굽었던 팔을 하늘로 향해 뻗고 두 팔로 원을 그렸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단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안무를 완성했고, 이 같은 노력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다잡는 방법이 됐다.

소영 씨는 자신의 춤을 '몸으로 쓰는 시'라고 표현한다.

"춤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이거 보여줘야지! 나 잘하죠?'가 아니라 이건 글이에요. 한 편의 내 몸의 시예요."

무대에 오르기 전 먼저, 소영 씨가 느낀 감정과 생각을 선생님과 함께 안무로 구성했다. 시와 노래를 통해 자신을 표현해 왔던 소영 씨에게 춤은 또 하나의 문장이자 시가 됐다. "관객들이 보고만 있지 않고, 나와 함께 춤추는 게 느껴져요. '소영아 같이 하자. 같이 추자' 이런 느낌? 관객들과 함께 언제든지 신나게 놀고 싶어요!" 삶의 원동력이 된 춤을 추면서 소영 씨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린다.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소영 씨가 늘 마음에 새기는 경구다. 춤 역시 '하나의 수행'이라고 여기며 연습한다. 동선을 까먹거나 팔이 굽어 동작이 잘 되지 않을 때면 부처님 앞에서 기도한다. 그리고 다시 연습한다. 소영 씨는 "부처님이 항상 제 뒤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라며 미소 짓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적 믿음을 넘어 그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게 하는 힘이 생기게 하고, 결국 삶을 살아가게 하는 든든함이다. 소영 씨의 신체를 검사한 의료연구원은 춤을 시작한 이후 '몸의 뻗는 힘'이 좋아졌다고 말한다. 과학적으로도 그의 몸은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새싹이 잎과 줄기를 뻗어가듯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죽을 때까지 두 다리로 걷고 춤을 추겠다고 다짐하는 소영 씨의 바람은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소영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거창한 성공담이 아니다. 그저 노력해 보자는 격려다.

"나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죠? 잘 하고 있어요!"

자신이 걸어온 노력의 과정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는 소영 씨. 배려와 도움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시, 노래, 이젠 춤으로 누군가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은 어려움 속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준 부처님에게도 향한다.

"나중에는 부처님 마음을 몸짓으로 표현한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앞으로의 제 큰 꿈이니까요."

그 서원이 이뤄질 때까지 소영 씨는 계속 춤을 출 것이다. '나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가 담긴 소영 씨의 춤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다. '춤'에서 삶을 찾은 소영 씨. 뇌성마비란 장애물이 그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끈질긴 노력으로 결국 무대 위에 섰다. 소영 씨는 인터뷰를 마치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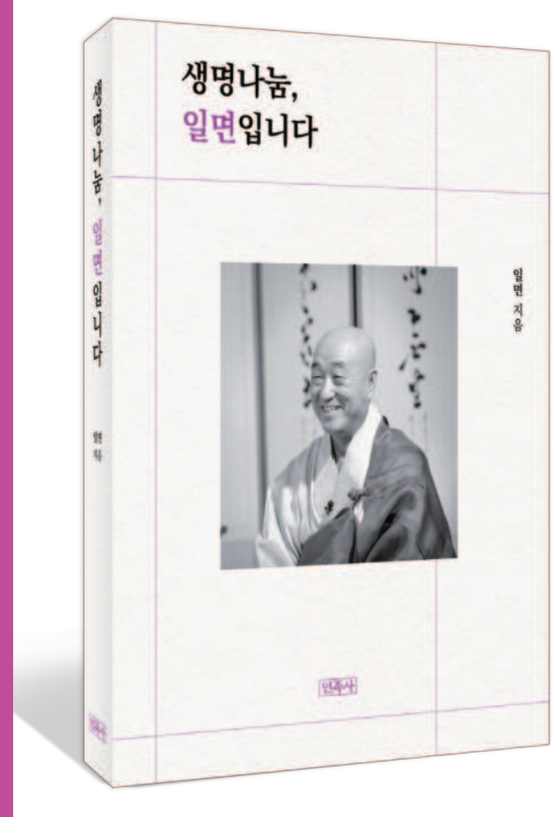
"여러분도 각자의 장애물을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노력들이 켜켜이 쌓여 삶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요!"



김소영 씨가 무대 위에서 춤을 선보이는 모습. 영화 '소영의 노력'의 한 장면. **사진 출처=필름다빈**

한 생을 돌아보니,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덤으로 얻은 생명에서 나눔의 길로, 수행과 자비로 채운 80년의 여정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이 모두 부처님이었음을"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2000년 1월 8일,
죽음의 문턱에서 간 이식으로 두 번째 삶을 얻은 일면 스님.
스님은 그날 이후의 삶을 '덤으로 얻은 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로 생명나눔의 삶을 걸었습니다

일면 지음 | 352쪽 | 17,500원

교보문고 바로가기



도서출판민족사 | 02-732-2402 | www.minjoksa.org

2026년 9월 9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93호 | 14 | 전면광고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가도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잡으면 구름 걷혀 나타나는
달과 같이 세간을 밝게 비추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요사:50평
- 매가 : 6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기도
- 부지 : 450평
- 법당 : 50평, 요사:60평 외
- 공원산 밑 주차10대
- 매가 : 3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칠포해수욕장 부근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정부 고시가 : 4억 7800만원
- 가액 : 3억원(대출 2억 8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전통양식)
- 보증금 2000만원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 보증금 : 500만원
- 시설 : 1700만원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809-7302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안성시청 15분 거리
- 대지 : 약 2만 5천평
- 법당 50평(목조), 산신각 10평(목조), 종각 10평(목조), 요사체 60평 2동, 원두막 2동, 저장고 6평, 용궁 30평 분수대 있음.
- 특징 : 납골당 허가 (5천구) 토목공사 완료, 수목장 부지 5천평, 15년 장뇌산삼 밭 1000평 이상, 수목장 일부 운영중, 가족석탑 운영중, 전기차량 충전소
- 동물 농장 - 꿩농장, 기러기, 칠면조, 닭
- 과수 농장 - 대추나무 약 200평, 밤나무농장, 자두나무 농장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산사나무
- 가액 : 오십오억 (스님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합니다)

010-6538-7222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면적 : 약1,200평(대지, 임야 등)
- 대웅전, 요사채 약 80평
- 가액 : 8억원(토지 공시지가 이하)
- 사찰 이외 타 용도 사용 가능

010-5383-6827
010-3339-0086

포교당 (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사찰안내(임대)

- 부산 동구 범일동 범일 공원 위(계단있음)
- 1층 2층 법당 각 40평씩
- 대지 98평 / 건물80평
- 방 5
- 보5000/월90(조율 가능)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 산자락
- 규모 : 대지 600평/건평 88평(6개동)/요사채, 법당, 미륵전, 비루전, 선다원, 산신각
- 법당 : 법구일체. (냉장고, 세탁기) 등은 보시하겠습니다.
- 가액 : 6억원

010-6325-6700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동구 천호동 올림픽로
- 25년 운영, 40평
- 임대료 보증금 : 1500만원
- 월세 : 100만원
- 시설비 : 협의
- 삼존불, 필림난방(전체)
- 대형 에어콘, 냉장고 2대
- 온수기 완비 *꼭! 하실분*

010-9167-7441

사찰(급)안내

- 땅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광고 접수 번호 안내

02-2004-8204

010-4648-8200

암자터(급)안내

- 대지 : 184평, 기도 수행도량
- 해발 600m, 주차, 텃밭, 실사용 500평
- 조용한 자연환경, 전기, 청정계곡, 토목공사
- 오시는길 : 청송 파천면 지경마을회관서 직진, 선덕암
- 가액 : 8천만원

스님 직접 010-9393-4965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내
- 규모 : 2층 법당 20평
  1층 요사채 방2개
  거실, 주방 등
  밖에 컨테이너 1동
  바로 앞에 금호강이 흐르고 있음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 가액 : 2억 5천(조정 가능)

010-3007-5611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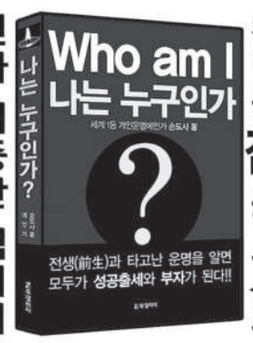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진짜 귀중한 책이니 꼭 읽어봐주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우주광명 누진통

- 지금은 우주불교시대
- 지금은 천존 천신의 시대
- 새로운 불교 수행법

단 10분에서 1시간이면 업장이 소멸되고 번뇌가 끊어져 무념 무상이되고 해탈이 되는것을 그 즉시 느끼고 깨달음이 이루어 집니다.

일광사 일광선원
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정1길 17~39

010-3586-6091

미래 철거 디자인

- 법당 철거
- 사찰 정리
- 유품 정리
- 가정집 정리

부산 : 이주현

010-5507-7080

49재 · 천도재 기제사 · 구병시식

사찰 방문시 무보시(무료)로 지내드립니다.

부산 서구 묘법사

010-2168-2800

북한산국립공원 내 암자

(서울 은평, 경기 고양 인접)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010-8699-2331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사찰 마이크 전문

美 MeCalley 유, 무선 마이크
전국 사찰 총판 !!



시중에 없는 최고급
美 Mecalley 무선마이크
◆ 1인용 : 350,000원
◆ 2인용 : 455,000원
(인터넷가 : 96만원)

염불전용 탁상 마이크



60cm 이상 거리에서 힘있고, 맑은소리 자체에서 소리조절
◆ 가격 : 155,000원

MeCalley KSM-97S



최고급 프로용 유선마이크
휴대용 알미늄가방 증정
◆ 가격 : 195,000원



초 원거리 염불전용
日製 유선 콘덴서마이크
◆ 가격 : 125,000원

취 급 품 목
사찰, 앰프설치, 이전전문
각종 앰프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제조, 판매
대출력 특수 스피커 제작

사찰음향컨설팅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89 (406호)

불교계 최고 통일 의식법요집



다비법요집 (1,445쪽) ····· 150,000원
천도법요집 (853쪽) ····· 100,000원
통용불공법요집 (885쪽) ····· 100,000원

■ 특징
- 불공신앙, 영혼천도, 사자신앙, 소재신앙, 세시풍습을 종합한 의식법요집.
- 출재가를 아우르는 예불, 독경, 기도, 공양 등 의식을 집대성한 의례의식집.
-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정례화된 한국 불교의 뿌리를 공고히 한 편찬서.

■ 내용
- 통용불공법요집, 다비법요집, 천도법요집은 흩어져 있는 불교의식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편찬한 통일 불교의식집이다. 특히 여러 큰스님들이 전해온 기도법과 신도들의 간절한 신심을 바탕으로한 전통 의식을 재정리하여 불자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 신심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되었다.

보급처 | 사) 대한불교교종 출판사 TEL : 031-297-8414

해썹(HACCP) 인 증 업 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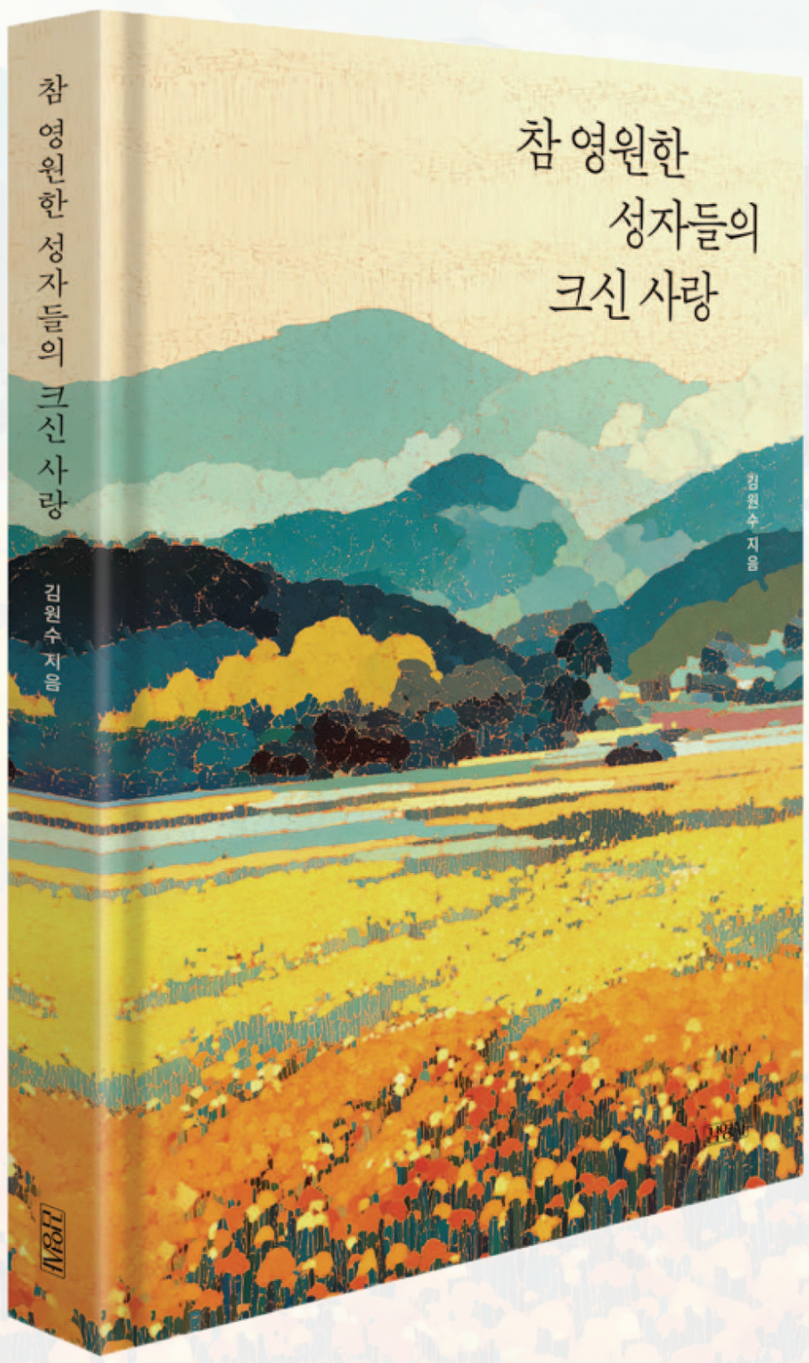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3위 교보문고 26년 7월 종합
2위 교보문고 주간베스트 종합
1위 교보문고 서울·경기권 11개 매장
7위 26년 7월 '화제의 책' 200선 중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전국 서점 438곳의 판매데이터 종합집계

김원수 법사의 수많은 저술 끝에 탄생한 유일한 소설작품.
대한민국 대표 출판사, 김영사 '신간 소설'
출간 즉시 종교서적 상위권 진입.



김영사 | 181쪽 | 16,800원

금강경의 핵심 진리를 소설로 녹여내다.

첫 장을 펼치면 단숨에 읽게 되는
'소설로 만나는 금강경'

실천가능한 금강경 강의와 해설서로
많은 불자들의 심금心琴을 울리며
금강경을 전파한 대학교수 출신의 저자,
김원수 법사가 구도求道소설을 통해
새롭게 독자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금강경 강의와 해설서로 독보적인 경지를 보여온 대학교수 출신의 저자 김원수 법사가 이번 신간 구도소설 『참 영원한 성자들의 크신 사랑』을 통해 작가로서의 탁월한 역량을 유감없이 펼쳤다. 저자는 수많은 저술을 통해 쌓아온 금강경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야기 속에 녹여내, 쉽고 깊게 빠져들어 단숨에 읽게 되는 〈소설 금강경〉을 탄생시켰다.

해방을 10년 앞두고 조선의 독립을 예견했던 금강산 도인, 백성욱 박사.
밝은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한 범부가 어떻게 변화하여 성자로 거듭나는지를 이 신간 소설에서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 책은 한 사람의 단순한 일대기를 넘어, 대승大乘의 길을 가는 구체적인 '수행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고통과 번민을 실제라고 믿는 착각에서 벗어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부처님께 '바치는 수행'을 통해 마음이 어떻게 자유로워지고 충만해지는지를 보여준다. 따뜻한 수채화 풍 일러스트와 함께 펼쳐지는 두 성자의 삶과 가르침은, 분노와 갈등이 일상이 된 오늘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끝없이 일어나는 오염된 사고의 편린片鱗들은 말끔히 사라지고, 깊은 산속의 시원한 옹달샘을 마신 듯 청량함과 더불어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깨끗이 정화되는 소설이다.

교보문고 2026년 7월 종합 3위, 주간베스트 2위를 기록하였고, 출판유통통합전상망 2026년 7월 '화제의 책' 200선 7위(전국 서점 438곳 판매집계 기준)에 선정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저자 소개

김원수 | 백성욱박사 교육문화재단 이사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학박사 학위 취득
· 홍익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로 정년퇴임
· BBS불교방송, BTN불교TV 인기강사

불세출不世出의 도인, 백성욱 박사님을 모시고 4년간 출가 수도한 후, 전 재산을 희사하여 3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백성욱박사 교육문화재단,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사단법인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들)을 설립하고 무료 급식으로 20년간 약 40만의 노인을 봉양해왔다. 주말출가와 일요 정기법회 등 금강경 실천수행을 수년째 지도, 특히 금강경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통한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백성욱박사 교육문화재단 | 문의 031-963-2871~2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

AI 기술 설계 방향, 인간에 달렸다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⑰ AI시대, 양극화를 넘어서는 길

서명 하나가 빠졌을 뿐이었다

2021년 1월 15일, 네덜란드 정부가 총사퇴했다. 유럽에서 오랜 기간 집권한 총리 중 한 명이던 마르크 뤼터가 내각 전원과 함께 물러난 이유는 뇌물 스캔들도, 금융위기도 아니었다. 바로 AI 알고리즘이었다. 네덜란드 세무 당국이 보육수당 부정수급을 걸러내겠다며 도입한 자기 학습 알고리즘은 이중국적과 낮은 소득, 심지어 '외국풍 이름'까지 위험 지표로 삼았다.

일단 사기범으로 분류되면 수당은 즉시 끊겼고, 수년간 누적된 수당 전액을 한꺼번에 반환하라는 통지가 날아들었으며, 분할 납부도 항변도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 조사가 시작된 계기가 서명 하나 빠진 서류 같은 사소한 행정 실수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렇게 2만6000명이 넘는 부모가 사기범으로 내몰렸다. 수만유로의 빚더미 속에서 파산과 실직, 이혼이 잇따랐고, 1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부모와 강제로 분리됐다. 의회 조사위원회는 이를 "전례 없는 불의"라 불렀고, 이듬해 정부는 사태의 뿌리에 '제도적 인종주의'가 있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피해 가구당 3만유로의 배상을 내놓았지만, 한 번 무너진 삶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피해 가정의 다수는 이주 배경을 가진 저소득층이었다.

알고리즘은 사회의 가장 약한 자리를 정확히 겨냥했다. 효율의 이름으로 설계된 기술이 왜 하필 가장 취약한 이들 앞에서 흉기로 변하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AI시대의 양극화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다.

의심은 먼저 닿고, 혜택은 늦게 닿는다

네덜란드의 비극은 우연한 오작동이 아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시스템을 조사한 보고서(2021.10.25.)에 '외국인 혐오 기계(Xenophobic Machines)'라는 제목을 붙였다. AI 자기 학습 알고리즘은 한 번 의심한 집단을 더 자주 조사했고, 조사가 늘어날수록 그 집단의 위험 점수는 더 높아졌다. 차별이 차별을 낳고 다시 차별을 학습하는 악순환이었다. 이중국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가 조사를 받은 사람이 1만1000명에 이르렀다. 비단 한 나라의 예외적인 사고도 아니었다.

3년 뒤 국제앰네스티는 이웃 덴마크의 복지 시스템에서도 국적과 가족 형태를 위험 지표로 삼는 유사한 알고리즘을 확인했다(국제앰네스티, 2024). 부유한 복지국가에서조차 감시하고 의심하는 AI는 가장 낮은 자리의 시민에게 가장 먼저, 가장 가혹하게 작동한다. 반면 사람을 돕는 기술은 정작 도움이 가장 절실한 자리에 가장 늦게 도착한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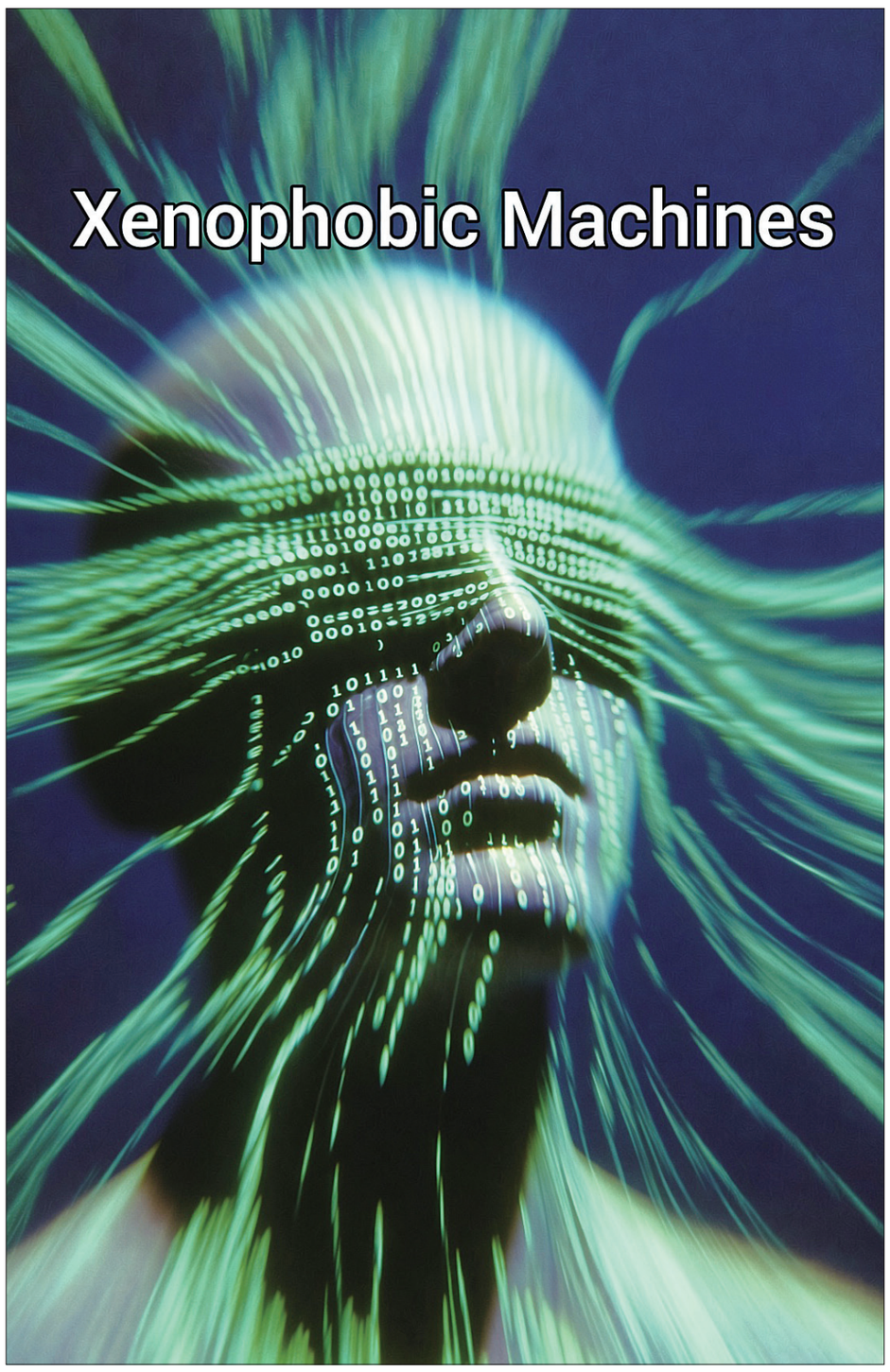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따르면 2025년에도 세계 인구 22억명이 인터넷 없이 살아가며, 그 96%가 저소득·중소득 국가 사람들이다(국제전기통신연합, 2025). 세계은행 역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농촌 학교의 약 3분의 1이 안정적인 전기조차 공급받지 못한다고 지적한다(세계은행, 2026). 전기가 없는 교실에는 아무리 뛰어난 AI 교사도 다가갈 수 없다.

한국이라고 사정이 다를까? 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고령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 수준은 일반 국민의 96.6%에 이르러 기기 보급은 사실상 완성됐지만, AI 서비스를 실제 이용해 본 경험률은 31.9%로 일반 국민(59.4%)의 절반에 그친다('2025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26.3.27 발표). 기기는 손에 쥐여 주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은 함께 건네지 못한 것이다.

> **2021년 네덜란드 정부 총사퇴 이면엔 세무 당국의 자기 학습 알고리즘 문제**
> **차별이 차별을 낳고 학습하는 악순환 설계에 따라 약자 돕거나 의심하기도**
> **두 갈래 길서 불교의 질문 현재도 유효**

결국 의심의 기술은 약자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고, 혜택의 기술은 약자에게 가장 늦게 도달한다. 양극화는 바로 이 두 속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같은 기술이 정반대 방향으로 쓰인 사례도 분명히 있다. 세계은행이 나이지리아에서 진행한 현장 실험에서는 교사가 이끄는 6주간의 방과 후 AI 개인 교습이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통상적인 학교 교육 1년 반에서 2년 치에 해당하는 만큼 끌어올렸다(세계은행, 2025). 같은 기술이 한 나라에서는 무고한 시민을 사기범으로 지목했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이들의 배움을 곁에서 도왔다. 이 갈림길을 만든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누구에게 먼저, 어떻게 다가가게 할지를 정한 인간의 선택이다.



AI 자기학습 알고리즘은 한 번 의심한 집단을 더 자주 조사했고, 조사가 늘어날수록 그 집단의 위험 점수는 더 높아졌다. 차별이 차별을 낳고 다시 차별을 학습하는 악순환이었다. 이중국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가 조사를 받은 사람이 1만1000명에 이르렀다. AI Grok 생성 이미지

알고리즘의 눈, 아버지의 눈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신해품(信解品)'에는 이 갈림길을 2000년 앞서 꿰뚫어 본 비유가 등장한다. 어려서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이 오십 년을 타국에서 떠돌며 걸식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사는 큰 성에 이른다. 아버지는 그사이 거부가 돼 있었다. 사자좌에 앉아 뭇사람의 예를 받는 위엄 앞에서 아들은 그가 아버지인 줄도 모른 채, 왕이거나 왕에 버금가는 이가 사는 곳이니 품을 팔 데가 못 된다며 달아난다. 그러나 아버지는 누더기 차림의 그를 한눈에 아들로 알아보았다. 기뻐서 사람을 보내 급히 붙잡아 오게 하자,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하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린다.

여기서부터가 이 비유의 핵심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놓아주게 한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초라한 행색의 두 사람을 보내 거름 치우는 품삯 일을 권하게 한다. 그리고 자신도 보배 옷을 벗고 때 묻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채 아들 곁에서 함께 일하며, 20년에 걸쳐 천천히 신뢰를 쌓는다. 임종이 가까워서야 아버지는 모든 식솔을 모아 놓고 그 걸인이 자기 아들이며, 모든 재산은 본래부터 그의 것이었다고 선언한다. 전통적 해석으로는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부처요, 가난한 아들은 자신이 무엇의 상속자인지 잊어버린 우리 모두다. 같은 장면을 뒤집으면 그대로 AI시대의 풍경이 된다. 남루한 행색의 사람이 부유한 시스템의 문 앞에 선다.

네덜란드의 알고리즘은 그 행색에서, 낮은 소득과 외국풍 이름에서 사기의 위험을 읽었다. '신해품'의 아버지는 똑같은 누더기에서 자기 아들을, 유산의 주인을 읽어 냈다. 눈앞의 정보는 같았으나 읽어낸 가치는 정반대였다. 하나는 밀어낼 근거를 찾았고, 하나는 품어 안을 길을 찾았다. 불교는 이 차이를 지혜와 방편이라 부른다. 상대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것이 지혜라면, 상대가 놀라 달아나지 않도록 다가가는 걸음을 궁리하는 것이 방편이다. 아버지는 둘 다를 갖췄다. 급히 붙잡으려 하자 상대가 기절하는 것을 보고는 방식을 바꿨고, 끝내 자신이 작업복을 입고 곁으로 다가섰다.

나이지리아의 교실에서 AI 개인 교습이 성과를 낸 것도 AI가 홀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교사가 아이들 곁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22억명의 오프라인 인구도, 접근은 되지만 활용법을 배우지 못한 고령층도, 서명 하나 때문에 사기범으로 몰렸던 그 부모들도, 본래 이 AI 기술 문명이라는 유산의 상속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속자를 의심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아니라, 상속자를 알아보고 그가 선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AI 기술은 스스로 누구를 먼저 찾아갈지 결정하지 못한다. 그 결정은 언제나 인간의 몫으로 남는다.

네덜란드의 알고리즘처럼 가장 약한 삶을 가장 먼저 의심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 나이지리아의 교실처럼 가장 뒤처진 자리에 먼저 손을 내밀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두 갈래 길 앞에서 불교가 오래전부터 물어온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 선택이 누구의 고통을 줄이고, 누구의 고통을 늘리는가. 유산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

남은 것은 그 유산이 닿지 못한 자리를 찾아가는 걸음이며, 그 걸음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야말로 AI시대의 윤리가 떠안아야 할 가장 구체적인 과제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틱낫한 스님의 『안반수의경』 해설
숨을 쉬세요, 당신은 살아 있어요!
불교 수행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수행인 수식관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아나파나사티 숫타(안반수의경)』를 틱낫한 스님이 쉽고도 현대적으로 해설하였다.
틱낫한 지음, 허우성 옮김/국판변형/192쪽/값 14,000원

교실에서 붓다의 가르침 실현하기
불교로 가르치다
붓다의 대화법과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교육 실천서로, 일방 주입식 교육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시드 브라운, 신희정 옮김/신국판/320쪽/값 22,000원

불교와 서양 심리학의 만남
새로운 불교심리학
12개국 38명의 저자가 서양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과 불교의 실천적 지혜를 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심리학 모델과 이론을 소개하는 기념비적인 책이다.
모리츠 키 외 편집, 윤희조·박재은 옮김/신국판/872쪽/값 5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시련과 자비로 삶을 비추다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⑰ 벼락의 양면성을 보여주다, 뇌공신(雷公神)

현재 전국에서 호우 피해 소식이 들리고 있다. 경기권의 경우 비뿐만이 아니라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하고 있으니, '하늘이 노하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예로부터 비와 천둥이 휘몰아치면 하늘에 있는 신이 내리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믿었다. 적당한 비는 농경사회에서 큰 축복이지만, 지나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흔히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말한다. 하늘의 뜻을 거스를 만큼 큰 죄를 지었기에 천둥과 벼락이라는 천벌을 받게 될 것이란 뜻이다. 그런데 불교문화에는 앞서 말한 천둥번개와 관련된 신이 존재한다. 바로 '뇌공신(雷公神)'이다.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북채를 든 뇌공신은 우리에게 벌을 주기도, 구원을 주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고대 동양신화 속 뇌공신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뇌공신은 고대부터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산해경(山海經)〉 '해내동경(海內東經)'에는 '뇌신(雷神)'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오나라 서쪽 '뇌택(雷澤)'이라는 호수에 살고 있으며 용의 몸뚱이에 사람 머리를 하고, 자신의 배를 두드려 천둥소리를 낸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같은 책 '대황동경(大荒東經)' 부분에는 '황제(黃帝)'가 뇌신의 뼈로 북채를 만들어 두드렸는데, 그 소리가 500리 밖까지 들려 천하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이후, 뇌공신 이미지는 중국 한대(漢代)의 사상가 왕충(王充)의 〈논형(論衡)〉 기록부터 정립된다. 〈논형〉에는 화공(畵工)이 우레의 모습을 그리는데, 주렁주렁 달린 것이 마치 '연고(連鼓)'의 형태와 같고 이를 '뇌공(雷公)'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우레란 번개를 뜻하고 천고는 하늘의 북, 즉 천둥소리를 의미하니 이러한 천둥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뇌공신인 것이다. 이와 같은 뇌공신의 모습은 한대 화상석부터 남북조시대 벽화고분, 불교 석굴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미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처님께 귀의한 뇌공신

앞서 살펴본 뇌공신이 석굴사원 벽화로 표현된 것은 불교문화에 뇌공신이 스며들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불교 경전에도 뇌공신으로 추정되는 존재를 찾아볼 수 있는데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에는 "큰 구름을 일으키고 벼락을 치며 우박과 돌을 비로 내려 보리수 위에 뿌렸다"라며 뇌공신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묘사돼 있다. 이 부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마왕 '파순(波旬)'의 군대가 이를 방해하려는 장면으로, 뇌공신이 파순과 함께 악역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돈황 제249굴 벽화의 뇌공신(중국 위진남북조 6세기).



팔상도 수하항마상 중 석가모니와 뇌공신 장면(조선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재앙과 구원의 두 얼굴, 천둥 번개의 신
남북조 벽화고분·석굴사원 벽화에 표현
부처님 위신력에 악신서 선신으로 변모
유교문화선 죄 사하는 자비의 심판자로

이와 같은 경전 내용은 미술로도 표현된다. 대표적인 작품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여덟 장면으로 압축한 '팔상도(八相圖)'다. 팔상도의 여덟 장면 가운데 위 이야기가 묘사된 부분은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이다. 보리수(菩提樹) 밑에서 정각(正覺)의 경지에 이른 석가모니 부처님과 이를 방해하는 파순의 대결은 팔상도 여덟 장면 가운데 가장 긴장되면서 극적인 모습이다. 여기서 뇌공신은 상단에 위치하는데 부하들을 부려 돌덩이와 벼락을 뿌리고 있다.

불교미술은 경전과 교리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이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격하는 뇌공신은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면 뇌공신의 태도가 변하게 된다. 이는 양산 통도사(通度寺)를 비롯한 18세기에 조성된 불화부터 보이는데 위에서 살펴본 뇌공신과 부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파순 군대를 공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뇌공신의 행위는 팔상도가 시작된 중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악역을 자처하던 뇌공신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돕는 '선신(善神)'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상황을 대변한다. 당시 불화와 불상 등 불교미술 조성을 담당한 계층은 스님들이었다. 이와 같은 승려 장인들은 그 누구보다 깊은 불심을 지니고 있었다. 기존 작품보다 부처님의 힘과 자비심을 강조하는 방법을 고민했을 것이고, 이를 악역인 뇌공신의 모습을 바꾸는 장면으로 해결한 것이다. 뇌공신이 선신이 된 것은 불심에 감화(感化)를 받은 것이고, 곧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묘하고 불가사의한 능력, 즉 '위신력(威神力)'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아무리 악한 존재라도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서면 선하게 변하는 위대한 힘 말이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오이면화(吳二免禍)' 장면(조선 15세기, 한국학중앙연구원).

권선징악을 보여주는 심판의 존재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천둥과 벼락이 큰 재난이 일어날 징조 혹은 왕이 정치를 잘못해 하늘이 꾸짖는 소리라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크고 쩌렁쩌렁한 천둥소리가 곧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징조이자, 하늘에서 말하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를 보여주듯이, 무속신앙에서 뇌공신은 '뇌공살(雷公殺)'이라고 하여 벼락 맞아 죽을 팔자를 주관하는 '벼락장군'으로 등장한다.

팔상도의 뇌공신이 깊은 불심을 보여줬다면 조선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유교문화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자비로운 심판자로 등장한다. 대표적인 예가 유교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효(孝)'와 관련된 설화 속 뇌공신이다. 이는 세종대왕 시기부터 편찬되기 시작한 〈행실도(行實圖)〉에서 볼 수 있다. 〈행실도〉는 당시 윤리교육과 백성 교화를 위해 유교의 이상적 덕목을 실천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실은 보급서다.

〈행실도〉 효자 목차 가운데 뇌공신이 등장하는 장면은 '오이면화(吳二免禍)'라는 이야기로 중국 송(宋)나라에 살던 '오이(吳二)'라는 남성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오이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신령이 나와 "너는 내일 정오에 벼락 맞아 죽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오이가 "저는 봉양해야 할 늙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부디 구해 주소서"라고 빌었더니, 신령이 "하늘에게 명령을 받았으면 면하지 못한다"라고 했고 오이는 늙은 어머니 걱정에 끊임없이 흐느꼈다.

다음 날, 오이는 어머니가 걱정돼 잠시 누이 집으로 모시려고 설득했지만, 어머니는 도통 말을 듣지 않으셨고 속은 타들어 갈 것만 같았다. 이윽고 정오가 되니 먹구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지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오이는 어머니가 놀랄까 봐 걱정돼 얼른 문을 닫고, 들판에 뛰어나가 자신이 맞을 벼락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까만 먹구름이 점점 옅어지더니 이윽고 푸른 하늘이 확연히 열리는 것이 아닌가? 순간 오이는 당황했지만, 화를 면했다고 생각하여 급히 어머니 곁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잠이 든 오이의 꿈에 신령이 다시 나타났다. 사실 오이는 신령의 말이 맞지 않아 의심하고 있었고, 신령께서 이를 알고 있는 줄 알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였다. 신령께서 오이를 칭찬하면서 말씀하시길 "너의 지극한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지은 죄를 용서했으니, 마땅히 공경하여 섬기거라"라고 하시고 사라지셨기 때문이다. 이후 오이는 하늘에 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다고 한다.

마치며

인류가 지구를 지배한다고는 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사람들은 비바람과 천둥·번개를 주관하는 뇌공신을 시련의 존재라 생각하여 두려워했다. 하지만 우리 문화 속 뇌공신은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면모를 보여줬다. 불교미술의 팔상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스며든 뇌공신을 보여줬고, 유교 미술의 〈행실도〉에서는 효의 덕목을 지킨 자를 용서함으로써 자비로운 뇌공신을 보여줬다.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비가 온 뒤 갠 맑은 하늘처럼 우리네 인생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벌을 주기도, 때로는 자비를 베풀기도 하는 뇌공신의 다양한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철학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김용덕 작가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
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의 염불시설한 베테랑업체!
전화하시면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 본사 유선마이크로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우리는 온전한 하나의 존재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㊵ '혼례대첩'(2023)



드라마 '혼례대첩'은 조선시대 명석하지만 연애 헛똑똑이 부마 정우와 연애 고수 양반댁 며느리 과부 순덕의 좌충우돌 중매 이야기를 다룬 로맨스 드라마다.
사진 출처=KBS 공식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세 원녀의 짝 찾아 고군분투 중매 드라마
혼례 날 죽음 맞은 공주 미스터리도 담겨
양반 정략결혼 비판 · 주체적 여성 사랑도
결혼, 반쪽 채움 아닌 온전한 존재 간 인연

예로부터 혼례를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 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큰일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평균 수명 80세를 넘긴 현대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어림잡아 30세 즈음 결혼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평균 수명을 80세로만 잡아도 50년 이상을 같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반려자다. 성인이 된 이후의 거의 모든 삶을 함께하는 셈이다. 그러니 한 사람, 아니 두 사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혼례, 즉 결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잃어버린 반쪽처럼 딱 맞는 금생의 반려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결혼까지 골인하고도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지는 것은 어느샌가 흔한 일이 되어버렸고, 죽음이 사랑하는 두 사람을 갈라놓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부의 연을 맺는 일에 '집안'이라는 것이 얽혀서 한층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양가의 격이 안 맞아서'라거나 종교적인 이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사이 등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는 청춘들을 종종 본다. 조선시대의 재혼 문제를 거론하는 드라마 '혼례대첩'을 살펴보자.

두 살에 천자문을 떼고 다섯 살에 시를 지을 정도로 명석한 두뇌와 누구든 한 번 보면 돌아보게 만드는 외모를 가진 심정우(배우 로운). 모든 것을 다 갖춘 정우에게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 정우는 늘 맞는 말만 하는데 정우와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매번 기분이 나빠진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

열일곱 되던 해 봄,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를 한 정우는 평양부 서윤에 부임하기로 예정됐지만 공주와 급작스럽게 혼인하면서 벼슬길에 나설 수 없는 신세가 된다. 그런데 혼례식을 치르는 중에 영문도 알지 못한 채 공주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우는 그야말로 청상부마가 되고 만다. 이후 정우는 혼인 무효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다. 자신같이 뛰어난 인재를 나랏일에 쓰지 않으면 조선 최대의 자원 낭비라는 이유를 대면서, 정우는 그렇게 매일같이 혼인 무효 상소를 올리는 생활을 어언 8년째 하고 있다. 공주의 남편인 부마는 재혼은커녕 첩도 들이지 못한다. 혼례는 올렸으나 첫날밤도 치르지 못한 데다가 철저한 '유교 보이'였던 정우는 천생연분의 커플들만 보면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짜증이 솟구친다. 사람들은 정우의 증세가 '울분'이라며 정우를 '한양 최고의 울분남'이라 부른다.

무신 집안 2남 1녀 중 막내딸로 태어난 정순덕(배우 조이현)은 여자가 글을 배워 뭐하냐는 소리를 듣는 시절에도 꿋꿋하게 글을 배워 책 읽기의 즐거움에 빠졌다. 특히 연애소설을 두루 섭렵하다 보니 현실 속에서 쉽게 짝을 찾기 어려웠다. 또 무신 집안 딸답게 남몰래 무술을 배워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월담과 달리기 실력을 갖췄다.

그렇게 스물두 살까지 혼인을 못한 원녀(노처녀)였던 순덕은 세책방에서 잘생기고 다정한 동갑내기를 만나 서로 첫눈에 반해 혼인을 했다. 상대는 무려 좌상 댁 둘째 도련님.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은 혼인 반년 만에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순덕은 청상과부가 되어 시댁 별채에서 격리 아닌 격리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순덕을 둘러싼 괴담이 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좌상 댁 둘째 며느리가 외로움에 사무치다가, 8년 전에 자결한 맏며느리 귀신에 씌어 밤마다 머리를 벽에 박아 이마에 피 칠갑을 한다는 것이다.

소문이야 어찌됐든 누구보다 활동적인 순덕은 별채에 지내는 것만으로도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순덕이 선택한 것은 이중생활. 방물장수 여주댁의 이름과 신분을 빌린 순덕은 한양 최고의 중매쟁이 여주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서는 세자빈 간택 문제를 놓고 왕과 신하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의 세자를 폐위하고 진성군을 왕으로 추대할 속셈인 좌상이 전국에 원녀(노처녀)와 광부(노총각)가 넘쳐난다는 이유로 세자빈 간택을 반대한 것. 은밀히 사정을 알아본 임금은 이러한 명분을 정우가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우에게 협박에 가까운 제안을 한다. 도성 사람이 다 알 정도로 괴팍하기로 소문난 원녀들인 남산골 맹 박사 집 세 딸의 혼례를 정우가 나서서 두 달 안에 성사시키라는 것이다. 성공하면 공주와의 혼인을 무효로 해주겠지만 실패하면 세자빈 간택을 방해하고 임금을 기만한 죄로 사약을 내리겠다는 엄포였다. 목숨이 걸린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은 정우는 중매의 신 여주댁과 함께 절대로 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세 원녀의 혼례 대작전에 나선다.



드라마 '혼례대첩' 포스터. 사진 출처=KBS

드라마 '혼례대첩'은 조선시대 청상부마 심정우와 청상과부 정순덕이 세 원녀의 짝을 찾아 고군분투하는 중매 코믹 멜로드라마다. 그런데 단순한 코믹물이 아니라, 8년 전 정우와의 혼례날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공주 사건의 내막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함께 담고 있다.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 중매 이야기인 만큼 드라마에는 '쌍연술사'라는 독특한 사람이 등장한다. 사람 사이의 연분을 감지하여 천생연분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자신이 쌍연술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다고 하는데, 심하게 앓고 난 뒤에는 남들의 짝을 이어주는 중매를 서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된다고 설명한다. 순덕이 중매의 신 여주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것도 순덕이 사실은 쌍연술사였기 때문이다. 커플들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짜증이 났던 정우의 증상 역시 울분이 아니라 쌍연술사로서의 능력이 발휘돼 연분인 남녀를 한눈에 알아봤던 것이다.

드라마는 연분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움으로써 조선시대 양반가의 정략결혼을 비판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집안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 또한 사랑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면서 "당신이 태어나 단 한 번 용기를 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두 주인공을 통해 정조와 정절을 강조하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재혼 문제를 진지하게 꺼내 든다.

특성상 자유연애를 표방하는 드라마는 사랑을 향한 여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학식뿐만 아니라 새총을 다루는 실력과 빛나는 기지와 용기를 갖춘 맹 박사 집 첫째 하나(배우 정신혜)는 세자의 목숨을 구한 인연으로 세자빈이 되고, 셋째 삼순(배우 정보민)은 한성부 종사관 정순구(배우 허남준)에게 먼저 청혼을 하기도 한다. 드라마의 이러한 주제의식은 특히 자결을 종용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담담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순덕의 말에 압축돼 있다.

"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서방님이 사랑한 모습 그대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다른 이를 좋아한다고 하여 서방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가 전해준 은장도로 옷고름을 자르며 선언한다. "조씨 집안 며느리로는 죽겠습니다. 하지만 정순덕은 결코 집안 때문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인연임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흔히 인연을 찾을 때 '영혼의 반쪽'이나 '소울메이트'를 찾는다고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됐다.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었으니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야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설법을 듣는 법석에서는 모두가 같은 삼매에 든다. 법회 때 법문을 듣기 전에 잠시 입정에 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참석자 모두가 빠짐없이 같은 세계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좋은 배우자는 나에게 없는 장점이 많아서 나를 채워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저절로 좋은 사람을 만난다. 여기서 좋은 사람은 스스로 부처임을 자각하고 모두를 부처로 보는 사람이다. 그러니 불교적으로 '잃어버린 반쪽'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의 존재일 뿐.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 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내 뿌리를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인 것입니다

초보 불자들을 위하여

질문 저는 이제 마음공부를 시작하게 된 초보 불자입니다. 얼마 전 친구 따라 선원에 발을 들이긴 했는데 주인공이니 맡겨 놓는다느니 하는 말도 아직은 생소하기만 합니다. 저와 같은 초보 불자들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만사의 모든 살림살이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연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속에 여러분의 몸을 끌고 다니는 마음의 주인이 있습니다.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의 그 마음의 주인, 주인공, 이 자체가 모든 일체를 다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그 주인공은 항상 일체 만법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림살이하는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내 마음 주인공에 맡기고 '모든 것은 거기서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 거기서만이 나를 물리가 터지게 해 줄 수 있다. 거기서만이 병고를 낫게 해 줄 수 있다. 모든 애고를 면해 줄 수 있다.' 하고 거기다가 모든 거를, 한군데 맡기고 생활하시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부터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그 몸뚱이를 끌고 가는 운전수와 같은 겁니다. 운전수가 차를 끌고 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것은 마음이 체가 없어서 광대무변하면서도 이 세상 전체 우주를 그 마음에 담아도 손색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인간의 모든 물질적인 현상은 바람과 흙과 물, 불 이 네 가지가 모두 여러분의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가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광대한 법이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아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과거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된 것이 현실에 나오듯이, 현실에 모든 것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현 생활 속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현실에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이 생활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한테, 자기 마음 깊은 정신세계의 주인공한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살아나갈 때에, 그 바로 컴퓨터에 입력됐던 것이 없어지고 되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되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되입력을 함으로써 앞서 입력된 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영계성이라든가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가 다 과거로부터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다가 입력을 다시 되할 때, 주인공에 다시 입력을 할 때 앞서의 모든 것이 없어지면서 현실에서도 모든 것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영원한 근본이 되고, 마음을 내는 거며, 육신을 움죽거리는 거며, 그 삼합이 한데 합쳐서 작용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타의에서 구하는, 즉 미신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내 자신의 참마음의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어떠한 애고든지 거기다가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셨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정신계의 참나, 자성 자신은 이 우주와 이 세상과도 전부 연결이 돼서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타의에서, 즉 '주여!', '부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고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내 자신의 주인공,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작용을 할 때 100%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봐주는 마음이 없어요

질문 큰스님께서 항상 부드러운 말과 행을 하라고 늘 일러 주셨는데도 저는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아 상대를 봐주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공부 한다고 떠들면서도 정작 제 마음 안에서는 분별심이 쉬어지지 않고 모든 상대와 환경을 탓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제가 정신 좀 차릴 수 있게 채찍을 가하여 주십시오.

답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나쁘다 좋다 하기 이전에, 나쁘다는 생각이 들면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 아니냐는 거죠. 또 좋게 했으면 '아이휴, 감사하구나.'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떠한 일이 과거로부터 인과로서 닥친다 하더라도 '음, 과거에 입력이 된 거고, 입력이 된 것도 네가 한 거니까 입력을 없애는 것도 네가 하는 거다.' 하고 다 맡겨 놓고 '주인공!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 주는 것도 너 밖엔 없다.' 하고 거기다, 생활 속에서 용도에 따라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을 준 놈도 너니까 안 주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놓아야 합니다. 상대에서 모두 나를 나쁘다고 묘략을 하고 들어올 때도 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나를 한번 돌아다보고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그 사람의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 당신밖에는 해결할 수 없어.' 할 때에 그 상대방의 마음이 스스로 녹아져 버리고 내 마음과 같이 착해지고 의리가 있게 되고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평등한 마음으로서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상대를 대하고, 아무리 마구니라 할지라도 마구니라는 생각을 말고 모자란다는 생각을 마세요. 모든 것은 내 모자랄 때 내 모습이요, 내가 나쁜 일을 할 때의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만 내가 살았던 게 아닌 까닭이죠.

그럼으로써 모든 잘못, 가정에서도 자식이나 모든 형제나 잘못됨이 있으면 모든 건 내 탓으로 돌리고 부드럽게 말을 해 주고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그 주인공에서 밖에는 해결 못 한다는 그런 믿음을 진실하게 가질 수 있어야 형제하고도 자식하고도 잘, 똑바로 나갈 수 있고 공부도 머리가 트여서 잘될 수 있고, 또 뿌리를 돋우어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만사의 모든 살림살이는 다 내 마음에 연결돼 있다

☞ 19면에서 계속

주니까 뿌리가 썩지 않으니 가장구가 썩지 않을 것이고, 열매가 크게 열려서 만 가지 맛을 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르익어서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가 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나무라기 이전에 나부터 돌아다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 씀이 좁은 탓일까요

질문 오래전에 지인이 사정이 어려워서 부탁하기에 돈을 좀 빌려 줬는데 지금은 형편이 좀 풀렸는데도 갚지를 않으니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얼마 전에는 친구에게 보증을 서 줬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의 마음 씀이 너무 좁은 탓일까요.

답변 우리가 내 중심에서, 오관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을 이게 적합지 않다면 적합지 않은 걸로 밀고 나가고 적합하다면 적합한 걸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적합지 않다 하면 건너질 말아라 이겁니다. 뛰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분수에 맞게, 욕심부리지 말고. 언제나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면, 자기의 분수에 넘친다면 언제나 해로움을 당해요. 개천을 건너뛸 때도 내가 건너뛸 만해야 건너뛰는 거지, 건너뛰지 못할 때 턱 건너다가는 한쪽 다리가 물에 빠집니다.

그러니 이 모습의 꺼풀을 쓰고 한 일생이, 그렇게 짧은 한 기간이 처참하더라는 얘깁니다. 모두들 '야, 일생이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 하며 사시는데 그것보다 더 아프고 쓰리고 에어 가는, 살을 칼로 짝짝 에어 가는 아픔을 느끼면서 사는 일생도 있으니 말입니다.

부처님 법이 어디 우릴 떠나서 있겠습니까? 밥을 떠 놓고 떡을 해 놓고 빌었던들 그 참다운 참 한마음의 한 점의 광대한 그 법을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밥 한 그릇을 놓고 죽 한 그릇을 놓고 먹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그 수많은 배고픈 사람과 같이 먹는다면 아마 그 죽 한 그릇은 되남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저 정성껏 시주를 하시라고도 하고 또 열심히 이 도리를 배우라고도 하고 그럽니까." 이러겠지만 사람이 내 욕심만 채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덜어라 이겁니다. 내 것만 아낄 줄 알고 내 것만 있는 줄 알고 모두 '내가 한다'고 하고 '내가 산다'고 하니까 남을 원망하게 되고 또 조상 탓을 하게 되고, 그러니 참다운 나를 못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일체 자기 탓이고 자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각자 나로부터, 이 세상에 어떠한 일생을 보낸다 할지라도, 강도가 들어서 칼로 찔러 죽인다 하더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고 물품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건 내 탓이지 도둑질하는 그 사람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그 사정을 모르기에 그렇지 그 사정은 사정대로 있기에 그렇습니다.

자비라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값싼 사랑, 애정 이런 데서 자비라는 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참답게 죽고 사는, 또 아주 쓰라리고 아프고, 따뜻하고 좋고, 이런 걸 한데 합친 그것을, 바로 균등을 잡아서 나갈 수 있는 이 우주의 근본 한 점의 바로 그 원리를 아주 값비싼 한 방울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하려걸랑 몽땅 다 주십시오. 하나하나 '내 거 네 거' 이러면 다 얻질 못합니다. 몽땅 다 주신다면 몽땅 다 서로가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몽땅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몽땅 다 나 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가, 내가 그분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이 내가 될 수도 있어야 이 우주의 섭류의 근본을 알아서 우리는 서로 무주상 보시를, 진짜 물질 아닌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더불어 다섯 가지의 그 오신통을 그대로 부리면서 참다운 대장부로서의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의 길잡이가 돼 주시니 우리는 그것을 주춧돌로 삼고 거름으로 삼아서 현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익을 취하십시다.

당장 먹고사는 일이 걱정인데

질문 바람처럼 물처럼 걸림 없이 살고 싶은데 당장 먹고사는 일이 걱정이라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주인공에 맡긴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요.

답변 그래서 여러분이 참 행복을 느끼고 산다 하는 것은 당장에 아침 먹을거리가 없어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먹고 살 거는 저절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 뜻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느냐 하실 거예요.

그런 거를 나무 얘기로 비유를 자꾸 하는데, 나무를 보면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의 싹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 걱정을 안 해요.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불성이 우리를 형성시켰고, 우리는 불성의 종자이고 아, 지금도 이렇게 형성시켜서 이끌고 가고 있는데 왜 주인의 걱정을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항시 "거기에 맡겨라, 맡겨라." 이런 말도 했고, "나는 공했으니까 없다. 나는 본래, 이미 공해서 죽은 거다. 자타가 같이 죽은 거다. 자타가 더불어 같이 나투고 이렇게 그냥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그거 역시도 죽은 거다, 모두가."라고 하기도 했죠. 텅 비었으니까 둘이 없어요. 둘이 없이 안과 밖이 텅 비었다 이거죠. 비어서 고요하니까 이름도 없는 그 이름이지만 아주 찬란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없는 그 이름이요."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본래 그대로 부처예요. 그런데 차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인과성이나 유전성 등을 인연으로 맺었기 때문에, 몸뚱이 속에 인연으로 맺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게 나오고 괴로움이 생기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모두 생각해 보면 한없이 편안한 겁니다.

살다가 오늘 죽으면 어떻고 내일 죽으면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죽는다 산다를 떠나면 그냥 편안한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 '좀 더 괜찮게 살아야겠다' 이런 게 없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함이 없이 하라. 너는 이미 공했다. 너는 이미 공해서 없다. 네가 하는 것도 없고 네가 앞으로 할 것도 없다. 네가 공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없기 때문에 갈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리를 우리가 알려면 그냥 무조건…, 이런 걸 알고 저런 걸 알아야겠다 하고 경전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경전이 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불성이라는 것을, 내 뿌리를 내가 믿고, 내 뿌리에서 내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거나 누가 뺏어 가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부터 알아야 나중에 '아, 이렇게 보니까 이렇구나' 하고 그때 가서 경전도 한번 볼 수 있구요, 또 다른 스님네들이 말씀하신 것도 한번 질문해 보구요. 또 살면서 '고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럴까?' 하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가 간단하죠. 내 뿌리를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인 거죠. 믿는다면 지금 내가 죽는다 해도 그냥 웃음이 날 뿐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병이 났을 때, 치료 방법은 두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뼈가 부러지거나 또 수술을 해야만 될 때 의사의 손을 빌리는 게 있구요, 또 때에 따라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거는요, 내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만물박사를 두었기 때문에, 내 속에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관음도 있고 지장도 있고 보현도 있고 법신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뭐든지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딴 집으로 구걸하러 다니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딴 데로, 딴 집으로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살아야만 되느냐는 거 말이에요.

이 도리를 모르는 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 미쳤다고 하겠지만요, 실질적으로 내가 실험하지 않은 거는 말을 못 하죠. 왜?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사람이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잘못 갔다가 한데 빠지면 나까지도 거기 관계가 돼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괜히 그 사람까지 빠져서 이 한 생에 벗어날 것을 오히려 세세생생 그냥 벗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니까요.

이거는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맘대로 웃을 일도 아니고 울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 말은 많이 들으셨겠죠. '물 같이 살라' 하는 거요. '바람같이 살라, 구름같이 살라, 산같이 살라'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왜 좋은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걱정이죠. 인생은 그렇게 바람같이 사는 거죠. 내가 항상 그거를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말하죠?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진다. 바람같이 없어진다. 지나간 거는 과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묵묵히 그냥 걸어갈 뿐이다."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는 게 고정된 게 없다. 보는 것도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것도 그냥 한 가지만 듣는 게 아니고,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다." 했습니다. 수많은 거를 바꿔 돌아가면서 말을 하고 마음을 내니 그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마음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면서 이 도리를 모른다면 한 생을 그냥 허탕 사는 거예요, 허탕! 지금 우리가 밥을 잘 먹고 돈을 잘 쓰고 옷을 잘 입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우주 천체로 봐서 우리 지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한다면 그렇게 되죠. 누구나가 잘되는 걸 좋아하지 잘못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국운이 없다 하더라도 국운을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잘못하는 거는 좀 제거시키면서 잘 돌려서 해 나가는 것도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진다.
> 바람같이 없어진다.
> 지나간 거는 과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 묵묵히 그냥 걸어갈 뿐이다.



-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성인
- 기 간 : 2026년 10월 10일~11월 28일, 총 8주 매주(토) 오후 1:30~5:30
- 장 소 : 한마음과학원
-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hansi.org 또는 전화 신청
- 수 강 료 : 20만원 (국민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 문 의 : 031-470-3200/3196

온라인 신청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열두 줄, 마음을 고르다

⑯ 가야금을 내려놓고 불러보세요

판단 앞서 마음부터 살펴야

가야금 수업 중에 학생이 같은 가락을 계속 틀렸다. 몇 번을 설명하고 다시 연주해도 같은 자리에서 멈췄다. 처음에는 손가락의 위치를 다시 알려주고 박을 세어주며 반복하게 했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악보를 덮었다.

"그 가락, 가야금 내려놓고 불러볼래요?"

학생이 잠깐 멈칫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런데 박자가 달랐다. 한 박으로 가야 할 곳을 두 박으로 늘여 부르고 있었다. 손가락 문제가 아니었다. 학생이 기억하고 있는 가락 자체가 가르친 것과 달랐던 것이다. 악보를 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잘 보이지 않던 문제가 악기를 내려놓자 드러났다. 겉으로는 같은 곳을 반복해서 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목소리로 드러나는 가락

국악에는 '구음(口音)'이 있다. 악기의 소리와 가락, 주법의 특징 등을 입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가야금에서도 가락을 익히고 전승하는 데 활용돼 왔다. 나 역시 정해진 구음으로 가락을 짚어보고, 학생의 수준과 수업 상황에 따라서는 연주할 가락의 길이와 흐름을 입으로 먼저 따라 해보게 한다. 악보와 손가락만 보고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던 것이 입으로 표현하는 순간 선명해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부분을 틀리는 두 학생이 있다고 해보자. 한 학생은 가야금을 내려놓고 불러보면 가락과 박자를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런데 다시 악기를 잡으면 틀린다. 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가락을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연결하는 연습일 수 있다. 반대로 연주할 때는 제법 따라오는데 악기를 내려놓고 가락을 불러보라고 하면 다음 소리를 이어가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이 경우에는 손가락을 더 움직이기 전에 가락의 흐름부터 충분히 익히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틀린 곳은 같아도 틀리는 이유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날 학생에게도 악보를 다시 설명하는 대신 가락부터 입으로 익히게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따라 하던 소리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고, 길게 늘여 부르던 박도 짧아졌다. 몇 번 입으로 가락을 확인한 뒤 다시 가야금을 들게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까지 계속 멈추던 곳을 전과는 다르게 지나갔다. 그제야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한 번 더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가락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열 번의 반복보다 한 번의 확인

악기를 배우는 데 반복은 필요하다. 나 역시 학생들에게 반복 연습을 많이 시킨다. 하지만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신이 어떤 가락을 연주하고 있는지 충분히 익히지 못한 채 악보에 적힌 음과 손가락의 위치를 연결하는 데만 몰두하는 경우도 본다. 이럴 때 구음은 연습의 순서를 잠시 바꾸어준다.

학생 연주 틀릴 때 결과로는 판단 유보
같은 실수라도 사람마다 틀린 이유 달라
마음챙김으로 생각과 사실 다름 알아야

이 과정은 가르치는 나에게도 학생이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가락 자체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지, 박의 길이를 잘못 알고 있는지, 가락은 알고 있지만 손가락으로 옮기는 과정이 어려운지에 따라 가르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틀렸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한다. 같은 실수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못한다'와 '어렵다' 사이

몇 번의 실수가 쌓이면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너무 빨리 결론 내릴 때가 있다. "저는 원래 박치예요." "저는 가야금을 못하나 봐요."

그럴 때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네가 가야금을 못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부분이 어려운 거야."

'나는 못한다'와 '지금 이 부분이 어렵다'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말이다. 마음챙김에서는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곧바로 사실이나 나 자신과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중요하게 다룬다. '나는 가야금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학생의 능력 전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라는 판단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구분이 생기면 연습의 방향도 달라진다. 가락을 다르게 기억했다면 가락을 다시 익히면 된다. 박을 잘못 알고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으면 되고, 가락은 정확한데 손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손가락의 움직임을 따로 연습하면 된다. 막연했던 '못한다'가 구체적인 '무엇이 어려운가'로 바뀌는 순간, 다음에 해야 할 연습도 보이기 시작한다.

선생의 역할도 답을 빨리 알려주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학생에게 계속 "다시"를 요구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다시 해야 하는지를 함께 찾아주는 일, '나는 못한다'는 커다란 결론을 지금 연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로 작게 나누어주는 일도 가르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학생을 가르치면서 결과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그날 수업이 끝날 무렵 학생은 다시 악보를 펼쳤다. 조금 전까지 틀리던 가락을 입으로 한 번 확인한 뒤 가야금을 들었다. 같은 자리에서 또 멈춘다면 다시 살펴보면 된다. 가락인지, 박인지, 아니면 손의 문제인지.

그래서 요즘 같은 가락을 자꾸 틀리는 학생에게 나는 곧바로 "다시"라고 말하지 않는다. "가야금 잠깐 내려놓고, 그 소리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가야금 명상곡 'Healing Me' 바로 가기



이현아 국악명상연구소장

건강 365

㊾ 소아비만

성장과 대사 건강 위협하는 신호

소아비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아이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학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소아비만은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니라, 성장과 대사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단순히 살이 찐 것일 뿐일까요?

비만 아동에서는 이미 다양한 대사 이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지방간·이상지질혈증·고혈압과 같은 성인 질환의 전 단계가 어린 나이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더라도 체내에서는 대사적 위험이 축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가 크면 괜찮은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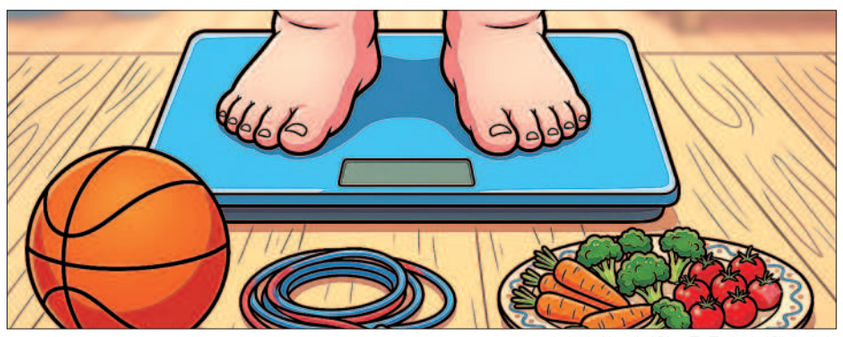
성장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아비만 아동은 또래보다 키가 큰 경우가 많아 보호자분들께서 안심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장의 가속 현상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만은 사춘기를 앞당기고 성장판의 조기 폐쇄를 유도할 수 있어 최종 성인 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아에서는 조기 사춘기와의 연관성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관리해야 할까요?

소아비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위험 증가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 성장기에는 체중을 급격히 줄이지 않더라도, 체중 증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키 성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체질량지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호를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또래에 비해 빠른 체중 증가, 복부비만, 당뇨나 고혈압 등의 가족력, 또래보다 이른 사춘기, 목이나 겨드랑이의 피부 착색 등은 인슐린 저항성을 시사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징후가 보일 경우 전문적인 평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사춘기 앞당기고 성장판 조기 폐쇄 유도
성인 비만 이어질 수 있어 조기 개입 要
약물치료보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관리

약물치료는 언제 고려할까요?

최근에는 비만 치료에 있어 약물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와 삭센다(리라글루타이드)와 같은 GLP-1 유사체가 성인뿐 아니라 일부 청소년 비만에서 사용되며 의미 있는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약제는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통해 체중 감소를 유도합니다. 다만, 모든 소아비만 환자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과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의의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오심, 구토 등의 위장관 부작용이나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약물치료는 생활습관 개선을 대체하는 방법이 아니라, 적절한 대상에서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치료 옵션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치료의 핵심은 여전히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당분이 많은 음료와 가공식품의 제한, 충분한 신체활동과 수면이 기본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아이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기보다, 가족 전체의 생활환경을 함께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소아비만은 단순한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대사 건강을 위협하는 조기 신호입니다. 이를 가볍게 넘기기보다,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려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작은 변화가 아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정유진
동국대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⑯

가난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수레꾼은 8월 31일 뽀디봉 마을에서 형편이 어려운 150가구를 직접 찾아가 쌀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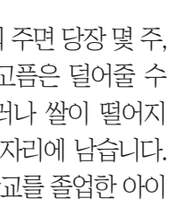
지난 8월 31일, '수레꾼'은 뽀디봉 마을에서 세 번째 쌀 나눔을 했습니다. 1차와 2차 쌀 나눔 때는 뽀디봉 마을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정과 공예학교 앞마당에 주민들을 모이게 한 뒤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마을 전체 380여 가구 가운데 특별히 형편이 어려운 150가구를 선정해 직접 집집마다 찾아가 쌀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쌀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마주한 그들의 삶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수레꾼이 이 마을에 처음 초등학교를 세운 것은 2008년입니다. 당시 뽀디봉 사람들은 우기에 내린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했고, 웅덩이의 흙탕물을 항아리에 담아 몸을 씻었습니다. 집이라고 해 봐야 나무와 판자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움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2008년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허술한 집 지붕 한쪽에 손바닥만 한 태양광 패널이 하나씩 매달려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운 움막 안에는 나무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침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낡은 냄비 몇 개와 옷가지가 살림살이의 전부였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 공예학교 목공반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 학생 네 명 가운데 세 명의 집도 그 안에 있었고, 봉제반에서 새로 배우기 시작한 여섯 명의 학생 모두가 이러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레꾼은 뽀디봉 마을에서 형편이 나아진 사람들을 주로 보아왔습니다. 학교와 우물이 생기고 길이 좋아지며 집을 새로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 전체가 조금씩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마을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간 미처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뽀디봉을 만났습니다. 18년 전 처음 만났던 주민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쌀 한 포대를 나눠 주면 당장 몇 주, 어쩌면 몇 달의 배고픔은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쌀이 떨어지면 가난은 다시 그 자리에 남습니다. 수레꾼 뽀디봉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가난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의 전쟁과 불안정한 상황으로 주변의 일자리마저 줄어들면서 졸업생들이 마을에서 스스로 살아갈 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이번에 가난한 가정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새삼 '수레꾼 뽀디봉 공예학교'를 세우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레꾼은 계속 자신의 손으로 물건을 만들고 판매해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가정을 돕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쌀은 언젠가 떨어지지만, 한번 익힌 기술은 자신의 두 손에 남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수레꾼이 뽀디봉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사찰음식에 마음을 담다 ⑧ 조상에 대한 감사, 백중 공양 음식에 담다

감사와 추모의 뜻 오래도록 이어지길

백중은 불교에서 조상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올리는 뜻깊은 날이다. 사찰에서는 이 시기를 맞아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공양하며 나눔과 감사의 의미를 되새긴다. 먼저 떠난 이들의 평안과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번 백중 공양에는 계절의 식재료를 정갈하게 다듬어 만든 사찰음식을 준비했다. 시원한 미역 오이냉국을 비롯해 머위대 들깨나물, 비름나물 비트샐러드, 바질페스토 가지샐러드를 올렸다. 제철 재료 하나하나의 맛과 색을 살려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한 상을 차렸다.

비트샐러드는 비트를 얇게 썰어 부드럽게 익힌 뒤 달콤한 오디잼을 곁들여 은은한 맛과 고운 색을 살렸다. 구운 가지에 마늘을 제외한 바질페스토를 만들어 올려 향긋하고 산뜻한 풍미를 더했다.

따뜻한 음식으로는 목이버섯과 채썬 유부 간장조림, 당근과 고추를 넣은 채소잡채와 청포묵 깻잎무침을 준비했다. 또 바삭하게 튀겨낸 누룽지와 찹쌀표고버섯 유자탕수를 함께 올렸다. 쫄깃한 표고버섯에 바삭한 찹쌀옷을 입히고 상큼한 유자탕수 소스를 곁들여 담백하면서도 산뜻한 맛을 살렸다. 음식마다 재료의 특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정성을 다했다.

조상의 은혜 되새기며 극락왕생 기원

제철 식재료에 감사와 존중 담아 조리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

백중을 맞아 올린 차 공양에는 특별한 정성이 더해졌다. 화개에서 오랫동안 차를 재배하고 직접 차를 만들어 온 차 지도자가 여러 종류의 차를 정성껏 준비한 것이다. 덕분에 백중의 공양 자리에서 조상님께 맑고 향기로운 차를 올리며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함께 전할 수 있었다. 찻잔에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차향은 도량의 고요함과 어우러져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 잔의 차를 올리는 소박한 공양이지만, 그 안에는 선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리는 마음과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불자의 정성이 오롯이 담겼다.

백중의 공양은 단순히 음식을 차려 올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먼저 떠난 이들의 평안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행의 한 과정이다. 음식을 만드는 손길에도, 함께 음식을 나누는 마음에도 조상과 가족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깃든다.

사찰음식은 자극적인 양념과 인공적인 맛을 줄이고 제철 식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살린다. 소박한 채소 한 가지와 나물 한 접시에도 자연에 대한 감사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다.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자연이 베푼 은혜를 되새기고, 먹는 이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된다.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마련하는 손길 하나하나가 곧 공양을 올리는 마음을 닦는 수행이 된다.

정성으로 마련한 한 상의 공양에는 조상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 가족의 평안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오롯이 담긴다. 백중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한 접시 한 접시의 음식처럼 조상에게 감사하고 자연에 감사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란다. 정갈한 음식과 맑은 차에 담아낸 공양의 마음이 조상님께 온전히 전해지고, 그 감사와 추모의 뜻이 오래도록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그리고 그 마음이 후대에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황수경
루미에르드포레 CEO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㉛ 지옥과 극락의 거리는?

'지옥'과 '극락'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두 곳 다 아직 가 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믿을 만한 사실을 근거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밝히기로 하고, 무량사 명부전에서 만난 극락 얘기를 좀 해볼까 한다.

무량사 명부전의 문살은 예전에 살림집에서도 흔히 달았던 평범한 띠살문이다. '사후 재판소'의 문치고는 지나치게 소박하다.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 보니, 먼저 온 사람이 있었다. 50대 중반쯤의 여성이었다. 얼핏 보기에도 표정에 그늘이 짙었다. 이럴 때 한국 할머니의 친화력은 자동으로 발동한다. 어떤 사연으로 홀로 명부전에 앉아 있냐고 물어보니, 남편과 다투고 집을 나왔다고 했다. 지난밤을 찜질방에서 보내고 나니 갈 곳이 여기밖에 없더란다. 부부 싸움이야 다들 하며 살고 '칼로 물 베기'라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지옥을 헤매게 된다. 그 마음이 만져질 듯해서 한참 동안 하소연을 들어 주었다. 적당히 맞장구도 치면서.

명부전의 문을 열고 돌아앉으니 오층석탑을 둘러싼 빛이 와락 쏟아져 들어왔다. 왜 아미타부처님을 무량광불이라 하는지 알 것 같았다. 한결 마음이 밝아졌다. 더욱이 '빽'도 든든하다. 우리 뒤의 지장보살님은 벌을 주는 심판관이 아니라 '지옥을 텅 비우는 것'을 원으로 삼은 보살님이다(갈수록 지장보살님의 할 일이 태산일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하다).

지옥과 극락의 거리는 20m다. 무량사 극락전에서 명부전까지 거리를 발걸음으로 어림해 보니 딱 그 정도였다.

손영자 작가



무량사 명부전.



히말라야 설산이 녹으면 인류도 사라진다

현불논단



준한 스님
서울 홍대선원 주지

지난 8월 26일 네팔 북부 랑탕 리룽 일대에서 빙하와 기반암이 무너지며 거대한 물과 진흙의 파도가 마을과 도로, 발전소를 휩쓸었다. 참사의 정확한 원인은 더 살펴봐야겠지만,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산비탈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ICIMOD)는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이어진다면 금세기 말 히말라야 빙하의 최대 80%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 최상단에는 중국과 미국, 인도가 있다. 그러나 정작 직격탄을 맞은 곳에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해맑게 웃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가장 적게 누린 이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기후위기의 아이러니다.

지수화풍(地水火風). 불교에서는 우리의 몸과 자연이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라는 네 가지 요소의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어느 하나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온전할 수 없다.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그 편리는 끝없는 욕망과 생산·소비, 그리고 낭비와 쓰레기를 낳았다. 특히 '화(火)'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다. 공기가 달아오르고 물은 넘치거나 마른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터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벌이 아니라 인연과보(因緣果報)의 명백한 이치다.

지구온난화가 부른 네팔 대홍수 참사
끝없는 탐욕의 인연과보, 인간의 공업
이재민에 모금 전달·어려움 함께할 터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인간은 스스로 가장 영리하고 강한 종이라 자부한다. 그러나 평균 15도 안팎인 지구의 표면온도가 1~2도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생존을 위협받는다. 지구에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대멸종이 있었고, 마지막 대멸종은 약 6600만년 전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멸종을 불러올 원인은 소행성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공업(共業)일지도 모른다.

나는 13년 전 첫 히말라야 순례를 시작해 18개월간 그 길을 걸었다. 지난해에는 안나푸르나 아래 해발 1400m의 터를 만나 '코리안 베이스캠프'가 될 히말라야 선원 불사를 시작했다.

9월 5일 홍대선원 4주년 법회를 마치면 법당 공사를 시작하러 네팔로 떠날 예정이었다. 그런데 출발을 앞두고 참사가 일어났다. 다시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나라, 히말라야에서 나는 무엇을 하려는가.

불사는 건물 한 채, 법당 하나를 세우는 일이 아니다. 그곳 사람들 곁에 서고, 물과 숲과 마을을 함께 지키는 일이어야 한다. 그래서 며칠 전 긴급 모금을 시작했다. 닷새도 지나지 않아 60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같은 마음을 낸 이들의 정성을 모아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네팔로 향한다.

부처님께서는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벗이 참된 벗이라 하셨다. 세계는 하나의 마을이고 우리는 지구의 가족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 곁에서 함께 걷고 설산을 지키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불사다. 히말라야 설산이 다 녹는 순간, 네팔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함께 사라진다.

인디언 추장, 인생을 말하다

세간과 출세간



이미령
칼럼니스트

늙은 인디언 추장에게 나이 든 딸이 있었다. 늙은 딸이 자기보다 더 늙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인생이 뭔가요?"

딸의 느닷없는 질문을 받자 아버지는 묵묵부답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기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봤다. 숱한 기억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꼬리를 물고서 떠오르다 사라지고, 늙은 인디언 추장은 긴 회상에서 깨어나더니 힘들게 천천히 입을 열었다.

"딸아, 삶이란 건 말이지, 초가을 황혼 무렵, 풀을 스치는 바람소리 같고, 밤에 날아다니는 불나방의 번쩍임과 같고, 한겨울에 들소가 내쉬는 숨결 같은 것이며, 풀밭 위를 가로질러 달려가 저녁노을 속에 사라져 버리는 작은 그림자 같은 것이다."(〈삶이란 바람소리일 뿐이다〉 중에서)

온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 이런 대답을 할 수 없으리라. 인생무상이란 사자성어가 이렇게 아름답고도 진솔한 비유로 표현될 수 있을까 감탄하며 내 마음속에 담아뒀던 글귀다.

경전을 펼치면 삶이 참으로 덧없다는 메시지를 도처에서 만난다. 빈두로 존자가 우타연 왕에게 설법했다는 긴 제목의 경전을 보자.

"새들이 밤이 되면 나무 한 그루에 깃들었다가 새벽이 되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저녁이 되면 객사에 나그네들이 모여들었다가 날이 밝으면 각기 다른 길로 떠나는 것처럼, 꽃이 활짝 피면 벌들이 모여들었다가 꽃이 시들면 멀리 떠나는 것처럼, 넓디넓은 호수에 백조들이 깃들어 모였다가 호수 물이 마르면 멀리 날아가버리는 것처럼…."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덧없다는 것이다. 뜨거운 여름에 아름답고 고고하게 피어난 연꽃도 가을이면 누렇게 시들어 버린다는 비유도 있다.

지나고 보면 무색한 여름날 더위 타령
여름 지나니 무더위에 집착 부끄러워
상념 대신 생계 활동·마음공부 힘써야

덧없음을 일깨우는 경전을 읽자면 인생무상이라는 이치에 공감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겠다는 의욕이 아예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무상을 탄식하는 엘레지[悲歌]에서 끝난다면 불교가 아니다. 인생을 허망하게 살아오다 노년에 이른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처님이 들려주는 게송은, 마냥 상념에 젖어 있던 내게 뼈아픈 일깨움으로 다가온다.

"저들은 젊었을 때 마음공부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다. 가진 재산을 모두 낭비한 지금, 실의에 잠긴 모습은 날개 부러진 왜가리가 물고기 없는 마른 못에 있는 것 같다. 힘없이 누워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라. 힘이 다해 땅에 떨어진 화살과 같이, 지나가버린 것을 신음하고 탄식할 뿐이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더위도 이제 조금씩 힘이 빠져서 어느 사이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분다. 무더위도 무상한데 왜 그토록 "덥다"는 말을 여름 내내 입에 달고 살았을까. 여름이 이렇게 속절없이 떠나갈 때에야 그에 집착한 내 자신이 부끄럽다. 그럴 시간에 노부부를 바라보며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무더울 때나 사무치게 추울 때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다. 부지런히 생계 활동을 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마음공부하여 인생에 가치를 찾는 일이다. 하긴, 이 두 가지 말고 또 무엇이 있으랴!

社 說

화합으로 한국불교 새 도약 이루길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진우 스님이 당선됐다. 지난 4년간 제37대 집행부를 이끌었던 진우 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자승 스님에 이어 두 번째 연임 총무원장이 됐다.

이번 선거는 종단 운영의 안정과 주요 종책의 연속성을 선택할 것인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였다. 종도들은 진우 스님을 택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선거 결과에 담긴 종도들의 뜻을 어떻게 종단 발전으로 이어가느냐다.

무엇보다 제38대 집행부가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종단의 화합이다. 진우 스님도 당선 직후 "화합으로 하나 되며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선거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수반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까지 갈등과 대립이 이어진다면 종단의 역량을 결집하기 어렵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여러 목소리를 종단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 과정 갈등 넘어 마음 하나로 모아
불교 호감 · 선명상 흐름 이어 열매 맺길

화합은 안정의 종착점이 아니라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다. 진우 스님은 지난 임기 동안 선명상 보급, 불교박람회,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젊은 세대와 국민에게 불교를 새롭게 알리는 데 힘써왔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고 종단의 안정적 운영을 이끌어낸 것도 주요 성과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한국불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연결해야 한다.

특히 진우 스님이 제시한 'K-불교문화'의 세계화는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전통 사찰과 수행문화, 사찰음식, 불교문화가 세계인에게 새로운 정신문화의 자산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안으로는 승가복지와 종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진우 스님은 출가에서 열반까지의 완전복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본수행비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수행자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종단의 미래를 위해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밖으로는 국민과 사회가 불교에 기대하는 역할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불교는 과거보다 높은 국민적 호감을 얻고 있지만, 호감이 곧 신행과 불교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교가 사회의 고통과 갈등을 치유하고 마음의 평안을 제시하는 종교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대의 문제에 더욱 적극 응답해야 한다.

진우 스님은 당선 소감에서 "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원융화합을 통해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종단 안에서는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종단 밖에서는 한국불교가 가진 역량을 세계로 펼쳐야 한다. 안정에 머물지 않고 도약하되, 도약을 위해 화합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

지난 4년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그 변화가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진우 스님이 원로 스님들의 당부처럼 '꽃이 피기 시작한 한국불교'가 충실한 열매를 맺도록 원력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9월 9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9월 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9월 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참사람 수행도량

白巖山 白羊寺

주지 고옹 무공

제18교구 본·말사 사부대중 일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www.baekyangsa.com

종무소 - Tel : 061-392-7502 / Fax : 061-392-2081

기도접수처 Tel : 061-392-0100 / Fax : 061-392-1143 **템플스테이** Tel : 061-392-0434